

수녀회의 요람, Nîmes



총원, Paris



# 성모승천 봉헌자

선교 수녀회

203, rue Lecourbe  
75015 PARIS - FRANCE

# 성모승천 봉헌자

선교수녀회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 의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1 - Ecrits Spirituels  
p. 693; 276

De gauche  
à droite :

- Afrique,  
Burkina Faso
- Am. Latine,  
Paraguay
- Asie,  
Corée
- Europe,  
Roumanie

# 성모승처 봉헌자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소서!**

«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느님 때문이라는 이 큰 이유 안에서 마음과 지성을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열어야 합니다... , 불을 지피고... ,  
우리 수도회의 정신에 따른 열정을 유지시키며... , 성인들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

Emmanuel d'Alzon 신부, 1876<sup>1</sup>

주해 부분에 언급된 책들의 제목은 아직 한국어 판이 없는 관계로 번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ÉDITIONS DU SIGNE

# 서문

«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읽으며, 그분을 기념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카리스마와 영성의 값진 유산을 오늘 이 세대에 그리고 차세대에 전달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알게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려는 열정, 일치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에 대한 열정은 우리를 « 바다 저 건너 »까지 가도록 부추깁니다 ».



Georgette-Marie 총장수녀님  
(1975-1993). 콩고에서.

1865년 5월 24일, 땅에 떨어진 씨앗은 150년 후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날에는 4 대륙에 걸친 25개국에서 활동하는 봉헌자 수녀들이 많은 이들과 함께 시대에 맞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단순함, 기쁨과 선교사로서의 활력을 지니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

«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  
«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 (이사. 6,8)



Claire Rabitz 총장수녀님  
(1993-2011). 베트남에서.



Sœur Felicia GHIORGHIES  
총장수녀

Felicia Ghiorghies 총장수녀님  
(2011-...). 탄자니아에서.





Vigan의 다리



Vigan 썬 피에르 교회의 세례반(盤)

# 1

## EMMANUEL DAUDE D'ALZON 의 유년시절과 청년기

# 1810-1832



« 예전에 나에게 이름던 모든 것들... » (필립, 3,7)



# Emmanuel

은 1810년 8월 30일 Nîmes님 근처의 Vigan 비강에 있는 Condamine 성에서 André-Henri Daudé d'Alzon 후작과 그의 부인인 Marie-Jeanne-Clémence de Faventine-Montredon 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8월 30일인 이 날을 좋아했는데, 이 날은 교회가 Lima 의 로사 성녀 축일을 기념하는 날이고 Emmanuel은 이 성녀를 무척 가깝게 여겼다. 그러나 Emmanuel<sup>2</sup> 이 제일 좋아했던 생일은 그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Vigan 본당에서 9월 2일 그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 교회의 아들이 된 생일이었다. 이 새로운 탄생, 은총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브늘의 귀족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또한 육(肉)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였다.

Daudé d'Alzon 가족의 가문에는 Deo dati 라는 라틴어 글이 쓰여져 있다. 이 표어는 조상들이 선택한 것으로서 자신을 « 하느님께 드린다 »라는 의미이며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표어는 하느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문에는 황금빛 백합꽃을 입에 물은 사자가 그려져 있으며 사자의 머리 위에는 관(冠)이 올려져 있고, 이 사자는 붉은 빛의 바탕 색이 부각 되어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Emmanuel의 개성은 이 가문의 그림과 비슷하다: Emmanu은 천성적으로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이고, 혈기왕성하며, 과격하고, 의협심이 강하였다. 그는 역경에 처했을 때 도 아량을 베풀었고, 전투에 임하여서는 항상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백합꽃이 십자가로 바꾸어 졌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게된 것은 그의 천성적인 열정이 어느날 그로 하여금 유일한 목표 즉,

André-Henri Daudé d'Alzon (1774-1864)

Marie-Jeanne-Clémence de Faventine-Montredon, vicomtesse d'Alzon (1788-1860)



d'Alzon 가족의 가문(家紋)





Lavagnac 성

진정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하다는 그 유일한 이유 하나를 향해 앞날의 방향을 정한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재림! <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 이었다. 그의 영혼이 숨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즉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힘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모든 이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도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렇다. Emmanuel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 천국을 점령하려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 ><sup>3</sup>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1816년 그의 가족이 정착한 곳은 Montpellier몽펠리에 근처에 있는 Lavagnac라바냐 성 이었다. Emmanuel은 유년기를 그곳에서 보냈다. 그 유년기는 가정교사 선생님에 의해 지나치게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하였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하였다: < 대체적으로 나는 온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 않는다... > 어찌되었든 그가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 부터이며, 이 교육은 그로 하여금 교양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l'Hérault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Paris에서 정착할 것을 결정하였다. Emmanuel은 13세였다. 그는 Saint-Michel 가에 있는 Saint-Louis 중학교에 다녔고, 그후 Stanislas 사립학교에 다녔다. 열기로 가득 찬 Paris 중심부에서 청소년기를 맞이한 Emmanuel은 조금씩 가톨릭계의 젊은 지식층들과 우애관계를 맺는다. 이들은 사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로서 이들중 유명한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Frédéric Ozanam, Henri Lacordaire, Charles de Montalembert



등이다. Emmanuel은 인간관계를 맺는 센스를 발전시켜 그는 어렵지않게 관계들을 맺으며 지식인들 중심부로 자신감을 지니고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로 부터 일종의 정치적 센스도 물려받았는데, 빈곤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회계층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교회에 협조하기를 원하였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는 한 젊은 사제를 만나는데, Félicité de Lamennais라므네였고 그는 Emmanuel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Lamennais의 야심은 교회를 현대 세계와 화해시키며, 프랑스 가톨릭주의를 왕정의 영향으로부터 해방 시키고자 하였다.



성숙해지기 시작한 Emmanuel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는 군인이 될 것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그 생각을 단념시키게 하였고, Sorbonne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도록 유도하였다. Emmanuel은 이 법학에 열정을 쏟으려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확신감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마음속에 하느님께 온전히 뿌리채 바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이것은 미지근한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가끔 Lavagnac성의 고독함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교회 사제직에 그의 삶을 바치고, 재산이나 귀족계급이 누리는데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커졌다.



Emmanuel은 이제 22살이 되었다. Montpellier에 있는 신학교로 떠날 때, 이 다정다감하고 뜨거운 마음을 지닌 이 젊은 청년에게는 집착을 끊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 사실, Lavagnac을 떠날 때는 정말 슬펐다. 나는 소리없이 떠났다; 나의 가엾은 어머니는(...) 내가 떠날 때는 그분께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다. 사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잘 제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격동에 차있었다. ><sup>4</sup>

1832년 3월 16일

Frédéric Ozanam,  
Henri Lacordaire,  
Charles de Montalembert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3 - Mt 11,12  
4 - P. Jean-Paul  
Périer Muzet,  
Anthologie  
Alzoniennne, Rome  
2003, p. 38

Félicité de Lamennais 신부



## 2 - 사제서품에 이르기까지 받은 영적 양성

# 1832-1834

«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루카 14,33)

### 배우고, 지적으로

양성되는데 열성적이었던 Emmanuel은 곧 Montpellier 에서의 생활에 싫증을 내었다. 그는 로마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1833년에 그는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결국 그는 몇몇 학식있는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독학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학습이 그의 열망에 잘 부합되었다.

이제 Emmanuel의 여정에 있었던 혹독한 순간을 보도록 한다. 그는 Montpellier 에서 주교님이 금지한 것을 무릅쓰고 몇몇 교수들의 협조로 비밀리 L'Avenir 미래 라는 Lammenais의 일기를 읽었다. 이제 신품성사에 앞서 Emmanuel은 진정한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선택은 그가 나아갈 길의 방향을 온전히 제시하였다. 그는 예수-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배우자인 교회를 자신의 취향이나 생각, 개인적 선택에 앞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레고리오 16세의 회칙 「Singulari vos」 는 1834년 Lammenais의 마지막 저작인 「Paroles d'un Croyant 신앙인의 말」 에 금지 처분을 내렸다. Emmanuel에게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맛보게 될 진정한 겸손의 행위와 순명의 정신



을 나타내는 시간이 왔다. 교회의 사제직에 대한 주축을 이루는 것이 결정적으로 주어졌다. 즉 다른 길로 가지않고 곧바로 교황님과 로마 교회로 가는 충성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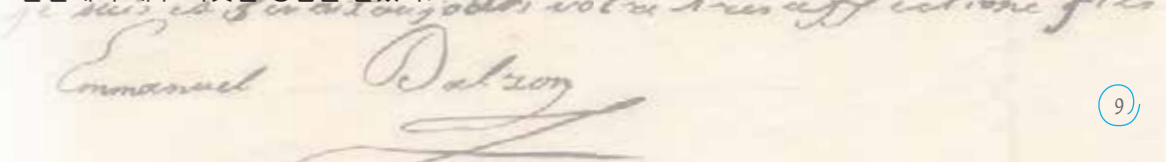
여기 Emmanuel이 1834년 12월 26일 로마에서 신품성사가 거행된 날 저녁에 그의 아버지에게 쓴 글이 있다:

« 누군가가 나의 견해에 대해 고발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품성사 이틀 전 부제관에서 Odescalchi 추기경님이 그분께 다녀가라고 부탁 하셨습니다. 이 추기경님은 제가 사제가 되도록 성사를 허락하신 좋은 분이요, 그후 추기경 보좌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Lamennais 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교황님 회칙에 전적으로 순명하며, 금지령이 나기 이전에 「신앙인의 말」이라는 저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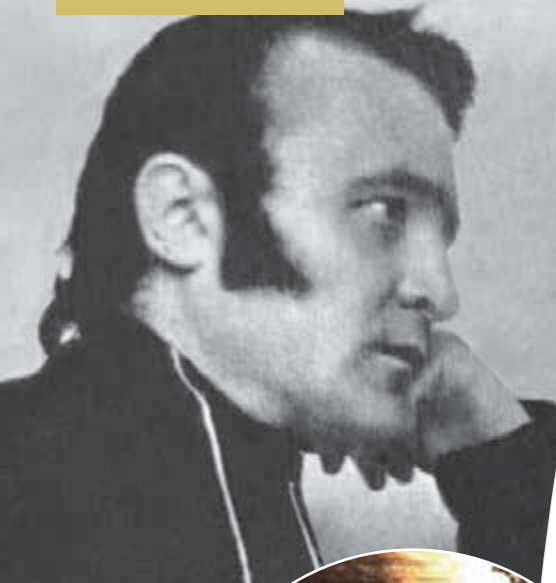
그러자 추기경님은 서류양식에 교황님의 이름으로 서명하라고 제의 하셨습니다. 그 서류에 나는 회칙에 완전 동의하고, 일종의 어떤 철학 시스템을 단죄하지 않는 이들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생각 할 시간을 주시겠다고 제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려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말씀드리고 즉시 서명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복사본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추기경님께 복사본을 요청했더니 얻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본은 교황님 손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추기경님은 교황님께서 제가 즉시 순종했던 태도에 매우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황님의 눈길을 끈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간 교황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sup>5</sup>

1835년 5월 로마를 떠나기 전에 d'Alzon 사제는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과의 개인 알현에서 매우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 3- D'ALZON 사제가 NÎMES 교구에서 한 봉사 1835-1844

« 너는 작은 일들에 충실하여야 한다... » (마태 25,21)

## 로마에서 몇해

동안 받은 양성은 젊은 d'Alzon 사제로 하여금 보편교회의 심장부 안에 깊고도 지속적인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고향의 교구로 돌아 왔을 때 그는 활짝 열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나라나 교구의 국경을 멀리 뛰어넘어 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시선을 지니게 되었다: « 항상 로마를 위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가끔은 로마없이 일하겠지만 절대 로마에 대항하여서는 안 됩니다... »<sup>6</sup> (1834년 8월 23일)

사제식을 맡은 25세의 이 새 신부는 젊음의 혈기로 가득찼다! 1835년 11월 Nîmes에 왔을 때 Chaffoy 주교는 아버지 같은 자애로움으로 그를 맞아들여 그의 초기 사제직을 동반하여 주었다. d'Alzon 신부는 강론을 하고, 고해성사를 주고, 성사들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복음화 계획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그 지방에 많이 퍼져있던 개신교 신자들의 개종이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헌신하고, 후원회, 자선협회를 만드는 데 불림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체 흠숭자들(Adoratrices)그룹을 만들어 그들의 기도가 자신의 사제로서의 설교와 영적인 면을 뒷바침해주도록 하였다 :

Bisson 신부가 그린 d'Alzon 신부 삽화



« 간혹 나는 내 편한대로 선교하도록 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께 솔직히 말하지만 내 성향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1836년 5월에 썼다.<sup>7</sup>

주교가 보시기에, 간혹, 많은 활동에 투신하려는 이 신부를 절제시키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러나 주교는 결국 이 사제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결국 승락하였는데, 그것은 « 회개한 거리 여자들을 위한 피난처 »로써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교님은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 아들이 그렇게 하시오, 모든 창설자들은 미친듯한 사람들입니다. 당신 역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소! »

그가 창설자가 갖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더라도, d'Alzon 사제는 현재 Nîmes 의 « 명예 참사원 »이며, « 명예 총 대리신부 »로 임명되는 것을 주교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유머도 잊지 않았다:

« 사람들은 내가 행정이, 즉 8일 마다 주교 참사회에 참석하여, 제의되는 일에 나의 의견을 주는 일에 성소가 있다고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일은 나에게 명예로운 일입니다. 25 살의 풋대기가 5-6명의 고령자들 가운데 엄숙하게 앉아서 듣고, 대답하며, 질문하고, 반대를 표명하기도 하며, 마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알고 있는 것 처럼 한다고 당신은 당신의 수염 사이로 너털웃음을 웃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총 대리신부가 되는 것은 정말 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겠습니까? »<sup>8</sup> 라고 그는 1836년 5월에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1839년 3월에 Cart 새 주교는 정말 날카로운 혜안을 가지고 그를 정식으로 Nîmes의 총대리 신부로 임명하였다: « 그는 하느님의 사람이며 능력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유로 내게 알맞는 사람이다: 그는 내 등을 떠밀 것이며, 나는 그에게 제동을 걸 것이다. »<sup>9</sup> d'Alzon 신부가 이 임명에 맞추어 선택한 숙소는 주교좌에서 준 숙소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아파트였다.

Monseigneur C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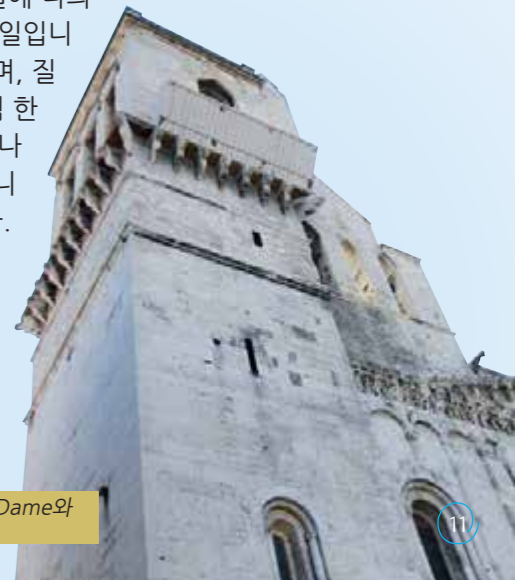
Nîmes에 있는 Cathédrale Notre-Dame와 Saint-Cas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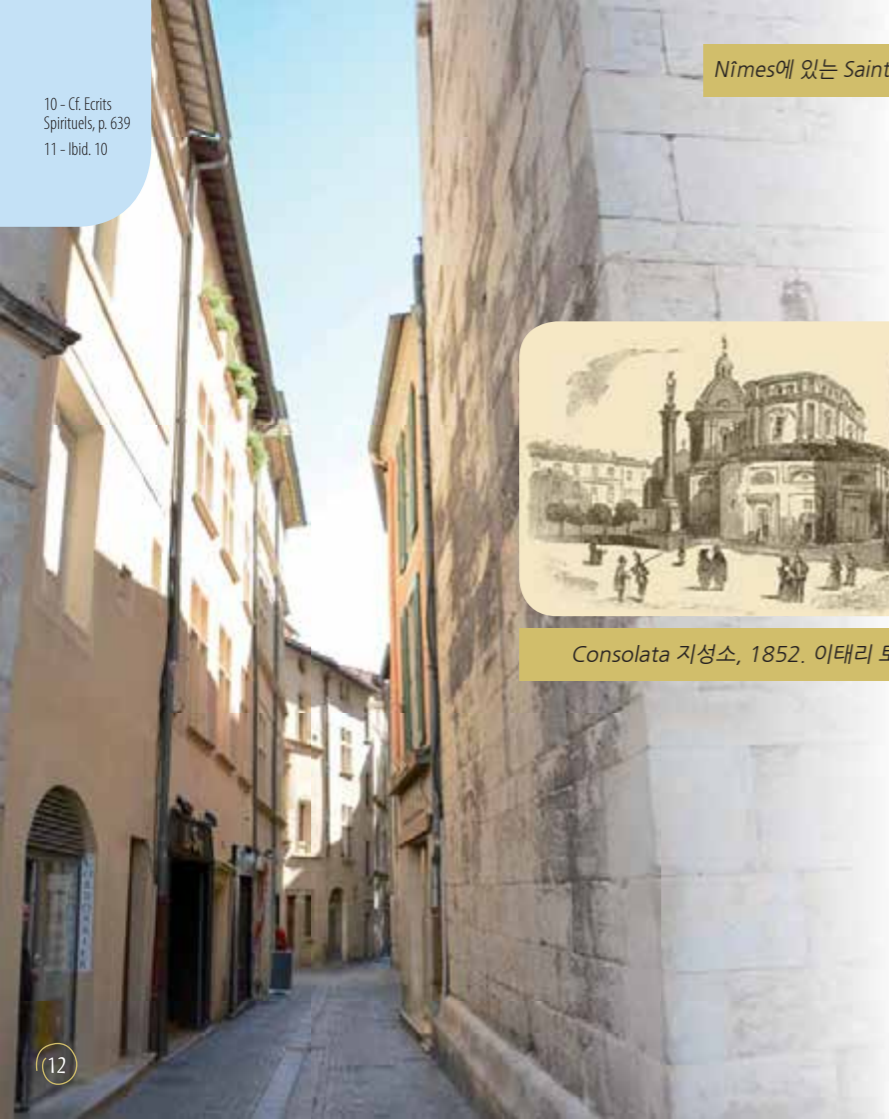
6 - Ecrits Spirituels, p. 759

7 - Lettres du P. d'Alzon, T. XIV, p. 82

8 - Ibid. 7

9 - Dossier sur la Vie et les Vertus, vol. II, T.1, p. 261





Consolata 지성소, 1852. 이태리 토리노

몇년 뒤에 d'Alzon 신부는 주교로 임명 될 것이고 그에게 호감을 갖는 친구들은 여러 주교좌를 물색하여 그에게 제의를 하는 것이 아마 정석에 따른 순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종류의 야심과는 멀리 있었다. 반대로 이제 34세가 된 그는 Turin 에 있는 'La Consolata 위로' 의 성모 마리아의 성소聖所에서 미사 중에 «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평사제로 있을 것 »<sup>10</sup> 과 교황님의 명령이 아니면 교회의 고위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었다.

성령께서는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어: 그는 « 하늘이 주는 영감으로써 완덕을 향한 삶으로뿐 만 아니라 수도회를 창설하도록 »<sup>11</sup> 떠밀어졌다고 고백한다.

## 4- NÎMES의 중학교로부터 성모승천 아오스딩회의 창설

# 1845-1857

«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 (마태 25,21)

### Père d'Alzon

신부는 이 무렵 Eugénie Milleret 와 알게 되었다.

Eugénie Milleret 는 1839년 여자 수도회를 방금 창설하였던 때이다. 이 수도회는 젊은 소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성모승천의 성모님을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의탁한 수녀회이다. 창설 당시에 d'Alzon 신부는 성모승천교육 수녀회의 Marie-Eugénie 총장 수녀를 지지하며 협조하여 주었다. 1841년 그녀의 영적지도자가 된 후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담대하게 그녀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데 힘을 기울였다.<sup>12</sup>

그러자 이번에는 젊은 창설자 Marie-Eugénie 총장 수녀가 새로운 수도회를 창설하도록 불림받은 듯한 느낌을 가진 d'Alzon 신부를 격려하였다.

아직 잉태 중인 이 수도회를 어느 곳에다 뿌리내리는가 하는 선택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d'Alzon 신부의 가까운 친구인 Goubier 신부가 미리 의논없이 Nîmes의 가톨릭 기숙학교를 d'Alzon 신부의 책임으로 구매하였던 것이다. 이 학교는 좋은 평판을 못 얻어 학생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 옛 « 성모승



성모승천 중학교



천 중학교 » 에서 d'Alzon 신부는 교육사업의 초석을 놓았다. 당시 이 사업의 독창성은 학생 하나 하나의 재능과 개성, 솔직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몇년 동안 공립학교 문교장관 곁에서 교섭을 한 결과 이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얻었다. 그는 공립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들은 자신의 신앙과 확신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다. 1844년 10월 1일 그는 공식적으로 이 학교 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1845년 6월 파리에 있는 Notre-Dame des Victoires 승리의 성모 성소聖所 에서 기도 중 식별하였던 수도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름에 주의하고 있었다. 그는 가난과 정결, 순종 외에 « 예수-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에 헌신한다 » 는 서약을 덧붙여 개인적인 서원을 하였다. 같은 해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그는 그 학교의 교사들 5명과 함께 수도자의 삶을 시작하였다. 가난의 서원을 살기 위하여 그는 학교에 혜택을 요청하여 간호실에서 기숙하였다. 창설자 Marie-Eugénie 수녀의 도움으로 그는 흰색 양모지로 만든 수도복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Lacordaire 신부의 도미니코 수도회<sup>13</sup> 의 수도복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는 이것을 입기 시작하였는데 아침과 저녁에만 이 옷을 입었다. 전쟁에 지친 Cart 주교는 d'Alzon 신부가 1년동안 수도자의 생활을 시도 해 보도록 하였다. 1845년 12월 24일 중학교에서의 수련소가 5명의 신부와 평신도 1명과 함께 복장도 갖추지 않은 채 탄생하였다. 조금씩 d'Alzon 신부는 학교 관리에서 물러나 창설자라는 새로운 소명에 헌신하게 된다.

규칙서는 부성애를 담은 그의 마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성숙 되어지고 단순한 형태로 작성되어 몇해 전부터 간직해온 그 이미지 대로 만들어졌다:

«우리 작은 협회는 영혼들 안에 예수-그리스도의 나라를 넓히면서 스스로를 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가진 좀더 특별한 정신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와 우리의 특별한 주보성녀이신 그의 거룩한 어머니, 교회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침범할 수 없는 교황님에 대한 사랑에 의거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믿음과 헌신, 희생, 기도, 솔직하고 사도적 정신에 따르는 삶이다. »<sup>14</sup>

파리에 있는 Notre-Dame des Victoires 교회



아오스딩 성인을 그린 가장 오래된 그림. 로마의 Saint Jean de Latran 교회에 있는 후레스코 화 6세기

D'Alzon 신부는 Cart 주교가 첫 서약을 허가할 때까지 인내롭게 기다려야 했다. 5년이 지난 후 1850년 성탄절 전날 공식 서원을 하도록 허락이 내렸다: 4명의 수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앞서 성탄절에 d'Alzon 신부는 학교 경당에서 1년 기간으로 서원을 했는데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전통적인 3가지 서원에 덧붙여 «영혼들 안에 예수-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 시키는데 온힘을 바쳐 헌신한다 »<sup>15</sup> 는 서원이 덧붙여졌다.

아오스딩 성모승천 수도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탄생하였다. 수도회는 아오스딩 성인을 후보로 모시고 아오스딩 규칙서의 영감에 따른다: « 우리 교부이신 아오스딩은 우리의 중요한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sup>16</sup> « 성모승천 »이라는 어휘에 관하여 d'Alzon 신부는 Marie-Eugénie 수녀가 창설한 수도회의 영성과 근사함을 말하고, 또한 공동체가 잉태된 « 성모승천 중학교 »를 상기시켰다: 그 학교는 수도회에게 이름을 주었다.<sup>17</sup>

D'Alzon 신부는 이렇게 하여 창설의 초석을 놓았다. 수도회에 명칭을 준 후 그는 수도회가 지닌 사도직의 큰 방향을 잡았다: 교육뿐 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사도직, 즉 출판물, 성지순례, 사회활동을 통한 사도직이다. 또한 해외선교와 교회일치를 향한 근본적 차원의 사도직 활동을 빼 놓을 수 없다.

1857년 5월 1일<sup>18</sup> 교황청으로부터 정식 수도회의 인준을 받기 앞서 Cart 주교는 1851년에 그가 성모승천 수도회의 사제단에 결정적으로 입회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 5- 《 당신이 하시는 동방사업을 축복합니다... 》

# 1860-1865

《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 (마태 28, 19)

**1860**년 d'Alzon 신부는 어머니와 큰 누이를 잃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가족의 많은 재산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가난을 서원한 그에게 이 재산은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교회를 위한 봉사에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Cénacle 을 구입하던지 혹은 성모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무덤을 구입하던지...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것이다. 그러나 비오 9세는 d'Alzon 신부의 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재력을 관대하게 불가리아로 향하도록 하였다.<sup>19</sup> 그곳에서 그는 젊은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고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열 수 있었다.

1862년 d'Alzon 신부는 교구의 67명 사제들과 주교를 동반하고 일본의 순교자들을 시성하는 로마로 갔다. 6월 4일 교황과의 공개 알현에서 그는 비오 9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나는 당신이 동방과 서방에서 하시는 사업을 축복합니다 》.<sup>20</sup> 동방에서 하는 그의 사업에 대한 축복은 당시에 아직 계획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에게는 그가 동방 정교회와 일치에 위하여 일하여야 하는 확실한 일로 비쳐졌고, 그보다도 교황께서 실행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보여졌다! 사실 그 당시 특히 불가리아에서 일어난 동방교회의 엄청난 흔들림으



로 인하여 비오 9세의 큰 소망<sup>21</sup> 은 이곳의 열기를 극복 하는 것이었다.

D'Alzon 신부는 수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파견함으로써 이 일을 시작하였다. 파견된 수사는 Victorin Galabert 신부였는데 그는 자진하여 이 먼 곳으로 파견되어 갔으며 d'Alzon 신부는 이 신부에게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Galbert 신부는 1862년 12월 20일 콘스탄티노플에 상륙하여 불가리아의 가톨릭 신자들의 상황을 분석하려고 애썼다. 가톨릭 신자들은 무슬림과 국경을 맴으며 살고 있었다. 갈라베르 신부가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은 Sultan 에 매여 있었다. 그 이유로는 터어키가 지중해로부터 동방쪽으로 향해 있는 주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종교적인 면으로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교황은 Brunoni 몬시뇰을 통하여 이 나라들의 소수 가톨릭 신자들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오토만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Brunoni 몬시뇰의 사도 단체가 현지에서 그리스도교의 사업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였는데 200.000프랑의 빚을 지는 계약을 맺었고, 이제 d'Alzon 신부가 뒷처리를 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 d'Alzon 신부의 아들들 》에게 허술하게 열려진 문들이었다!

그러나 Galabert 신부의 보고는 d'Alzon 신부를 설득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상황이 매우 복잡해져 d'Alzon 신부는 자신의 성격의 특징인 타인을 잘 설복시키는 정신으로 1863년 4월에 자신이 그 곳으로 갈 준비를 하였다. D'Alzon 신부는 배를 타고 이 새로운 모험의 넓음을 가능하면서 유머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 이렇게 썼다: 《 하느님, 나는 주님을 위해 어느 별집으로 나를 쏘여넣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는 좀 미친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sup>22</sup>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여 사순 강론을 하고, 안드리노플까지 강행하여 갔다. 그리고 그 곳에서 실제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즉 《 정교회로 부터 일치의 가톨릭으로 복귀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활기차게 하는 것. 》<sup>23</sup> 그곳에는 수도자들이나 수녀들이 물론 있었으나 신학교, 현지인 가톨릭 성직자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로마의 성 베드로 Basilique. 비오 9세의 축복.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19 - Cf. Lettres du P.E. d'Alzon T. IV, p. 339

20 - Ibid. 19

21 - Cf. Ecrits Spirituels, p. 1450

22 - Lettres du P.E. d'Alzon, T. IV, p. 188

23 - Dossier sur la Vie et les Vertus, vol. II, T. II, p. 718



Père Victorin Galabert





그는 대중을, 학교를, 교회를 주시하였고, 또한 주저없이 교황님께 순종할 자세였다. 이제 그는 로마로 가서 이 선교활동을 보고할 자세였다: 중학교 설립 문제에 « 예 », 신학교 설립에 « 예 »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과의 더 생생한 접촉과, 그들에게 봉사할 태세가 되어있어야 했다.

그의 선교에 대한 열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불가리아로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Galabert 신부에게 모든 적합한 사업들을 돌보도록 맡겼다. 1863년 말 Galabert 신부는 안드리노플과 Philippopoli 옆에 있는 내륙으로 침투하여 들어갔다. 이 탐색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Philippopoli에 90명의 학생과 함께 학교를 세우기로 소박한 결심을 하였다. 이 학생들은 라틴계 불가리아인들로서 멀리받는 계급이었다. 1863년 12월 10일 의사이며 신학 박사인 Galabert 신부와 성모승천회 동료이며 약사인 Barthélémy 신부 두 사람은 사전준비 없이 학교를 짓고 교사가 되었다. 이 일은 성모승천회가 동방에서 갖은 첫 번째 창업이었다.

1864년 3월부터 Galabert 신부<sup>24</sup>는 수녀들이 현지로 오도록 하는 문제를 거론하였다. 수녀들 없이는 신부들의 사도직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가 힘들고, 끝까지 가기가 어려웠다. 자신의 요청을 지원해주도록 그는 소피아에 있는 라틴계 주교가 소원하는 열성에 기대를 하였다. 이 주교도 같은 노선을 걷는 분이었고, 그는 d'Alzon 신부에게 불가리아 가정들은 수녀들이 말아하는 학교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주교는 d'Alzon 신부를 설득하여 그가 이 문제에 확신을 갖도록 다그쳤다. 즉 동방선교에 임한 그의 수도자들은 그들의 사도직을 끝까지 해 나가기 위하여는 동반자로서의 여성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동방에서의 d'Alzon 신부. 1863

## 6- 성모승천 봉헌자 수녀회의 창립

« ...나는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 당신과 같은 협조자를 딸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sup>25</sup>

(Emmanuel d'Alzon 이 Marie Correnson에게)

1865



**D'Alzon 신부는** 주의깊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학교나 의료소를 통하여 불가리아인들의 가정에 파고 들려면 실상 현지에 여성이 있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고 있었다. 이러한 세심한 봉사에는 « 더욱 겸손하고, 무엇보다 시급하게 돌보아야 할, 우리 주님이 특히 사랑하시는 세상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 »<sup>26</sup> d'Alzon 신부가 알아차린 것은 가정이나, 혹은 자선 사업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한다면 교육 사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불가리아 처녀들을 모집하여 프랑스에서 양성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근래 몇 해 동안 그가 헌신해온 성모승천 교육 수녀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동방에 뿌리박은 다른 공동체, 즉 시온의 부인들, 사랑의 딸들의 집 문을 두드릴 것인가? 이 선교 협찬 계획들은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럽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 볼 것이다! » 영혼 안에서 창설을 하는 d'Alzon 신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단순하였다! 불가리아 선교에 부름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는 두 번째 수도회를 창설할 계획을 세웠다.<sup>27</sup>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항상 현실적인 d'Alzon 신부는 자신의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러자 해결책의 실마리가 어렵지 않게 구상되었다. 그의 수사들 가운데 수련소의 수련장으로 임명한 Hippolyte Saugrain 소그랭 신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수도회를 창설할 것을 목표로 젊은 청원자 여성들을 알아볼 수 있는가를 요청하였다. 이 일은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았다. 하느님께 헌신하고자 열망하는 젊은 여인들이 있는가? 창설자는 아직 Eulalie de Régis와 Emmanuel-Marie Correnson을 온전히 기



Père Hippolyte Saugrain

대고 있을 수는 없었다. d'Alzon 신부와 소그랭 신부는 자신들이 지도하고 있는 여성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d'Alzon 신부는 깜짝 놀랄만한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가 Cévennes 젊은 여자들에게 자신의 선교 계획을 말하였을 때 이 여자들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선한 의지를 신부님께 드리며 응답하였던 것이다.

« 그녀들은 교육은 충분히 받지 못했으나 관대한 마음으로, 크나큰 선한 의지와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하신 하느님께 헌신하려는 일에는 이 가난한 처녀들은 ‘만일’이라는 말이나 ‘그렇지만’이라는 말, 혹은 ‘그 이유’ ‘그러나’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거룩한 처녀들입니다...오! 가난한 처녀들의 단순하고 솔직함이며! 오! 훌륭하고 아름다운 처녀들의 지혜와 신중함이며! 오! 헌신이며! 극기며! »<sup>28</sup>

D'Alzon 신부가 마음먹은 것은 Marie-Eugénie 총장 수녀와 함께 성모승천 교육 수녀회 안에 수녀들과 보조 수녀들 중간에 봉헌자라는 가지를 만들어 선교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d'Alzon 신부는 동방 선교를 위해 창설할 여자 수도회를 위해 « 봉헌자 »라는 이 명칭을 간직하였다. 그리고 그녀들은 « 성모승천 봉헌자들 »이 될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수녀회는 d'Alzon 신부가 Nîmes에서 창설한 « 성모승천 아오스딩 수도회 »에 접목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놀라운 힘으로 1865년5월23일, 6명의 첫 « 봉헌자들 »을 자신이 태어난 도시인 Vigan의 아주 가까운 곳에 정착 시켰다. 정확히 말하면, 수녀들을 위하여 Rochebelle로쉬벨에 집 한채를 세내어 빌리고, 이곳을 « 불가리아의 성모 »라고 명명하였다. 봉헌자 수녀들은 각각 종교적인 이름을 받았고, 그 이튿날 Marie Auxiliatrice 도움이신 성모 축일에 수녀들을 위해 d'Alzon 신부는 창립 미사를 집전 하셨다. 같은 날 사목 시찰 중에 Plantier 주교는 갓 태어난 이 창설을 축복하였다. 이어서 8월 14일에 수녀들은 착복식을 하고 그들의 수련 생활을 시작하였다. 6개월 후 그들의 수는 18명이 되었다.

Rochebelle에 있는 첫 번째 봉헌자들의 집 « 불가리아의 성모님 »

## 7- 봉헌자 수도회의 공동 창설자

# 1866-1868

«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 (필립 2,6)

**D'Alzon** 신부의 현실주의적 감각은 이 처녀들의 선한 의지만 가지고는 수녀가 되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였고 선교사가 되기에는 어렵다고 여겼다. 현장에서 Galabert 신부는 어떤 봉헌자 수녀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숨기지 않았다.

« 학교 교사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애덕의 활동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동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무슬림교나 이교도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1865년 7월 21일)<sup>29</sup>

그러므로 이 처녀들을 애덕에 대한 의무적이고도 아름다운 양성을 시키고, 수련자들을 이 정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수련장을 찾아야 했다. Marie-Eugénie 총장 수녀는 자신의 수녀들 중의 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파견하는 데 동의하였다. 마리-마들렌 수녀가 성모승천 봉헌자 수녀들의 삶 안에서 첫 발을 내건도록 수련생들을 도와 주었다. 그 사이에 d'Alzon 신부는 마음에 드는 장상을 찾고 있었다!

지치지 않고 신뢰에 찬 마음으로, 무엇인가 이루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성격의 d'Alzon 신부는 봉헌자들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그리고 창립 사업에서 자신을 도와 줄 사람을 자신의 영적 딸들 중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가 바로 Emmanuel-Marie Correnson 이다.

D'Alzon 신부는 이 소녀의 집안, 특히 성모승천 중학교의 의사였던, 그의 아

23세의 Marie Correnson의 초상화. 의사인 조부 Pleindoux 요청에 따라 그려졌다.





버지를 잘 알고 있었다. 1859년 5월 21일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 마리는 17세였고 d'Alzon 신부는 49세였다. 그들 사이에는 매우 깊은 영적 관계가 맺어졌다. 그것은 자애와 상호 신뢰로 이루어진 것이나, 한편으로는 두 사람 모두가 갈망하는 거룩함에 목표를 둔 단호함과 강경함이 있었다:

« 딸이여, 당신은 아버지의, 진정한 아버지가 지닌 작은 단순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 자녀로 주심에 대해 내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기를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로서의 좋은 습성이 들면, 아마 이 습성이 감소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허물없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결점은 있으나 위대한 성녀가 되기를 원하는 딸을 갖게되어 매우 큰 즐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sup>30</sup> (1864년 2월 11일)

d'Alzon 신부는 얼마 전부터 마리가 봉헌의 부름을 받았다고 느꼈으나 그는 이 부름이 무르익도록 기다렸다. 반면 마리에게 보낸 지도 편지에서는 그녀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음에 신중하도록 강조하였다. 그 거룩함이 « 세상 안 이든지 », 아니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든지 상관 없었다. 동방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을 때 d'Alzon 신부는 그가 발견한 것들을 그녀와 함께 나누고자 편지를 보내며 교회가 고통받는 교회 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자신의 선교 계획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였다:

« 사랑하는 마리, 자,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이 아름다운 사업에 헌신합니다. »<sup>31</sup> (1863년 3월 5일)

특별하게 그가 믿은 것은 그들 둘이 모두 한 사업에 협력하도록 불림을 받았다고 식별한 것이었다. 아직은 장래에 있을 그들의 공동사업의 윤곽이나 형태가 잡히지 않았을 때이다.

«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언젠가는 당신에게 요구될 사려깊고 힘찬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sup>32</sup> (1863년 4월 9일)

이리하여 마리는 첫 번째 봉헌자 수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1865년 5월 24일에는 « 불가리아의 성모 » 집에서 d'Alzon 신부가 집전하는 창립 미사에 참석하



였다. 마리는 그곳에서 온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의 영적 아버지가 방금 태어나는 이 사업을 위하여 간곡하게 부탁한 기도를 올렸다:

« 불가리아 뒤에는 슬라브 민족의 큰 집단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6 천 만 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sup>33</sup> (1869)

1866년 7월 어느날, 오랫동안 기도 안에서 자신의 요청을 숙고한 끝에 d'Alzon 신부는 Marie Correnson에게 첫 번째 봉헌자 수녀들에게 합류하여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 줄 것을,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새로운 수도회의 창설자가 되어줄 것을 제의 하였다. d'Alzon 신부는 마리가 끊어 버려야 할 것들이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들, 그의 이마에 씌워 줄 가시관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 하느님께서서는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음 »을 토로하였다:

« 당신은 진정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힘을 느끼십니까? 뻔히 보이는 모든 진통을 겪으면서 이 사업이 태어나도록 할 결심이 있습니까? »<sup>34</sup> (1866년 7월 20일)

d'Alzon 신부의 이 숨김없는 요청은 마리의 내면에 많은 동요를 갖게 만들었다. 마리는 자신에게 부여될 모든 희생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무겁게 여겨졌다. 마리의 거절은 분명하고 명확하였다. 마리의 용기를 꺾는 것은 거칠고 가난한 생활이 아니라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처녀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마리는 지금까지 Nîmes의 상류층의 편안한 생활밖에는 알지 못하였다.

d'Alzon 신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부성애는 힘차게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잘 알고 있어 마리의 거절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가진 고뇌의 한 표현일 따름이라고 보았다. 그는 마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는데 우리는 이 편지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공감과 함께 짓는 미소를 엿볼 수 있다:

« 우리 주님이 인류를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하늘에서 부터 죄인들에게 내려 오시는 길을 택하셨음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가진 위치에서 내 가난한 딸들의 자리로 오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Emmanuel-Marie de la Compassion 어머니

당신이 갖는 이 혐오감에 대해 언젠가는 크게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가 당신에게 사도적 삶의 아름다움을 좀 더 알려주었더라면 당신은 그 아름다움을 더 잘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실 갖는 여자들과 산골 여자들과 시작한것 처럼, 우리 주님은 이 아름다움을 무엇보다 먼저 죄인들과 천한 사람들을 택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sup>35</sup> (1866년 8월 23일)

마리는 그의 영적 아버지의 요청에 오래 저항하지 않고, 답장으로 보낸 다음의 편지 구절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결여된 넓은 마음을 겸손되어 인정하고 재빨리 마음을 추스려 잡았다:

« 신부님, 당신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신부님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하느님께 저를 봉헌하였습니다. 마치 저 자신을 한번도 봉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그분이 저를 원하시는대로 저를 쓰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그

좋은 편지에 쓰신 것처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순종의 서원을 다시 갱신하기 위하여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sup>36</sup> (1866년 8월 24일)

D'Alzon신부는 이 딸의 << 예 >>를 행복하게 받아들였다. 때로는 성급하고 충동적인 기질이기도 하지만 그는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성을 기할 줄 알았다. 마리가 사랑에 찬 응답을 하는 성숙함을 지니게 하기 위하여 그는 마리에게 몇달 동안 더 세속에 머물게 하면서 << 비밀히 수련생

35 - Lettres du P. E. d'Alzon à M. E.-M. Correnson, Bruxelles 1993, p. 61-62  
36 - Lettres de M. E.-M. Correnson, Bruxelles-Paris 2005, p. 17-18  
37 - 1Co 9,22  
38 - Lettres de M. E.-M. Correnson, Bruxelles-Paris 2005, p. 28

활 >>을 하게 만들었다. 1867년 4월 7일 첫째 번 봉헌자 수녀들이 Nîmes의 중학교 경당에 모인 가운데 마리는 << Emmanuel-Marie de la Compassion라는 이름과 함께 적당한 때가 오면 입게 될 수도복을 영적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마리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준 <<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sup>37</sup> 라는 표어에 아주 만족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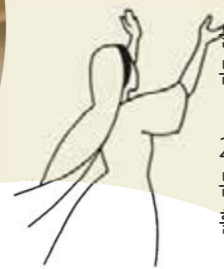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표어는 우리 주님께 많은 영혼을 얻어 드리게 하기 위하여는 내 성격에 아주 잘 맞습니다. 나는 나를 내어주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헌신할 필요성을 이해하였습니다. >><sup>38</sup> 1867년 5월 16일

몇 주 후가 되어도 부모들로부터 허락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리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마음을 죄어오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기로 하였다: 어느날 아침 마리는 평상 시처럼 미사에 참여하려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날 << 6월 27일 그날 >> 마리는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수도복을 입고 Rochebelle로 가는 길을 따랐다. 그곳에서 봉헌자 수녀들은 d'Alzon 신부가 그녀들에게 어머니로 선정해 준 마리를 기꺼이 맞아들였다:

« 모든 수녀들이 경당에 모여있었다. 그리고 내가 총장의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들은 마니피갓







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것이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sup>39</sup> (1867년 6월 27일)  
D'Alzon 신부 역시 마니피갯을 마음 속에서 노래하였고 이 25세의 젊은 총장 수녀를 양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마리에게 그녀가 세속에서 시작한 강도 깊고, 특이한 수련 생활을 계속하도록 제의하였다:

« 이 수련 양성을 나는 당신에게 편지 쓰듯이 서면으로 하여

이 사업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당신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수련소는 우리의 대화와 서신들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당신이 이 사업의 참된 어머니

가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특별한 방법에 따른 수련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당신이 곧 마음

을 놓아야할 것에 헌신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sup>40</sup> (1867년 5월 14일)

그런 다음, 그는 Marie-Eugénie 총장 수녀에게 여름 몇 주간을 수도 생활의 관습에 대하여 이 수련자를 지도해 주도록 도움을 청하였다.

1868년 4월 < 강도깊은 > 양성을 받은 후 이 수련자는 d'Alzon 신부의 손 아래에서 종신서원을 하도록 허락되었고, d'Alzon 신부는 손수 이 엄숙한 약속의 조서를 기초 작성하였다:

« 1868년 4월 18일 Emmanuel-Marie de la Compassion 총장 수녀는 1년의 수련 생활 끝에 d'Alzon 신부의 손 아래에서 성모승천회의 수도자들과 Nîmes의 수녀들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종신서원을 하였다. 이 서원은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봉헌자 수녀회의 창설자에게 걸맞는 것이었다. >><sup>41</sup>

D'Alzon 신부가 이 그리스도의 젊은 신부에게 증정한 서원에 따른 반지에 그는 Lima의 로사 성녀가 받은 말 씀을 약자로 새긴 것이었는데 리마의 로사 성녀는 d'Alzon 신부가 매우 경애하는 성녀였다: R.C.M.T.M.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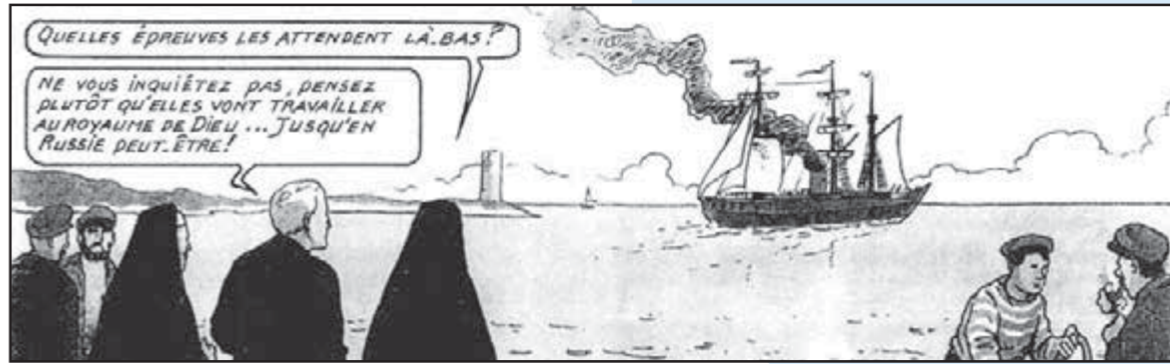
내 마음의 장미, 내 신부가 되어 주시오...



## 8- 동방 선교를 향한 출발

# 1868

«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



동방선교를 향한 출발.  
D'Alzon 신부, Emmanuel-Marie Correnson 어머니, Marie-Eugénie Milleret 어머니

### 1868년 4월 19일

Emmanuel-Marie Correnson 총장 수녀의 서원이 있는 다음날, 5명의 봉헌자 수녀들이 그의 눈 앞에서 d'Alzon 신부의 손 아래 그들의 종신 약속을 하였다. 그들은 이사야 예언자에게서 영감을 받은 표어를 얼마 후 받게 되었다: «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sup>42</sup>.

D'Alzon 신부는 그의 딸들에게 자신이 지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전달하고자 열망하였다: « 나는 이 새로운 수도회가 첫번째 수도회, 즉 성모승천 수도회처럼 내면적 신앙의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모든 섬세함, 전심으로 뛰어들고, 아주 신중하게, 예수-그리스도를 사도적으로,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용기와 전략은 좋은 것입니다. >><sup>43</sup>

1867년 여름, Galabert 신부가 파리에 잠시 들렀을 때 Rochebelle로 가서 젊은 봉헌자 수녀들의 발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은 그가 돌아가 수녀들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안드리노플을 선택하여 그녀들을 위한 첫 번째 공동체를 창설하려 하였다. 그는 재력과 권위있는 사람들에게 수녀들이 거주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할 토지를 얻는데 필요한 재정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창립의 날을 1868년 부활절 축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동방으로 떠나는 시간의 종이가 울렸다. 1868년 4월 25일 23-33세에 이르는 5명의 첫 봉헌자 선교 수녀들은 마르세이유 부두에서 배를 탔다. Emmanuel-Marie de la Compassion 총장 수녀와 d'Alzon 신부, 그리고 Marie-Eugénie 총장 수녀도 마르세이유 부두에서 그들의 출발을 지켜보았다.

« 나는 선교를 하러 떠나는 이 첫 출발을 감동적인 추억으로 마음에 간직하였다. 우리의 존경할 d'Alzon 신부와 Emmanuel-Marie 총장 수녀 사이에 누가 더 행복해 했는지를 가늠하기가 힘들다. 그들은 모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sup>44</sup> 라고 Louise Correnson은 말하였다.

힘들고 변수가 많았던 여행 끝에 5월 7일 수녀들은 안드리노플 변곽인 카라가취에 도착하였다. 프랑스 영사를 비롯하여 많은 유럽인들이 그들을 마중나왔다. (신사들은 말을 타고 있었고, 부인들은 사륜마차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수녀들은 tartarabas(우마차)에 당당하게 올라탔다. 5월 24일 수녀들은 안드리노플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2개의 학교를 세워 문을 열었다. 한 학교는 무료 학교로 성 빈

안드리노플에 있는 고아원



1914년 이전에 있던 안드리노플의 Saint Louis 학교

첸시오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가톨릭 교도, 정교회 인물, 그리스 인물, 아르메니아 인물, 유대인들 학생들에게 문을 열었다. 다른 하나는 유럽 상류 사회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였다.

« 나는 같은 날 무상 학교와 기숙사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애덕 사업은 우리 사업의 핵심임을 나는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만 안드리노플의 가톨릭 신자들의 청원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호의로 우리는 기숙사를 열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sup>45</sup> Victorin Galabert 신부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몇 년 안되어 그의 열정에 따른 놀라운 많은 사업이 태동하였다. 봉헌자 수녀들은 고아원을 열고, Barthélémy 신부의 협조로 진료소<sup>46</sup>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은 가난한 구역에서 종교와 민족의 구별없는 새로운 학교의 설립으로써 강의는 불가리아 말로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학교와 병원이 있게 될 것이었다. 1878년에는 벌써 21명의 봉헌자 수녀들이 안드리노플과 Philippopoli 사이에 배치되었다.

수녀들이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Galabert 신부가 간혹 한탄했던 것과는 달리 d'Alzon 신부는 수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봉헌한 신비



Germer Durand (Cécile 수녀- O.A.)부인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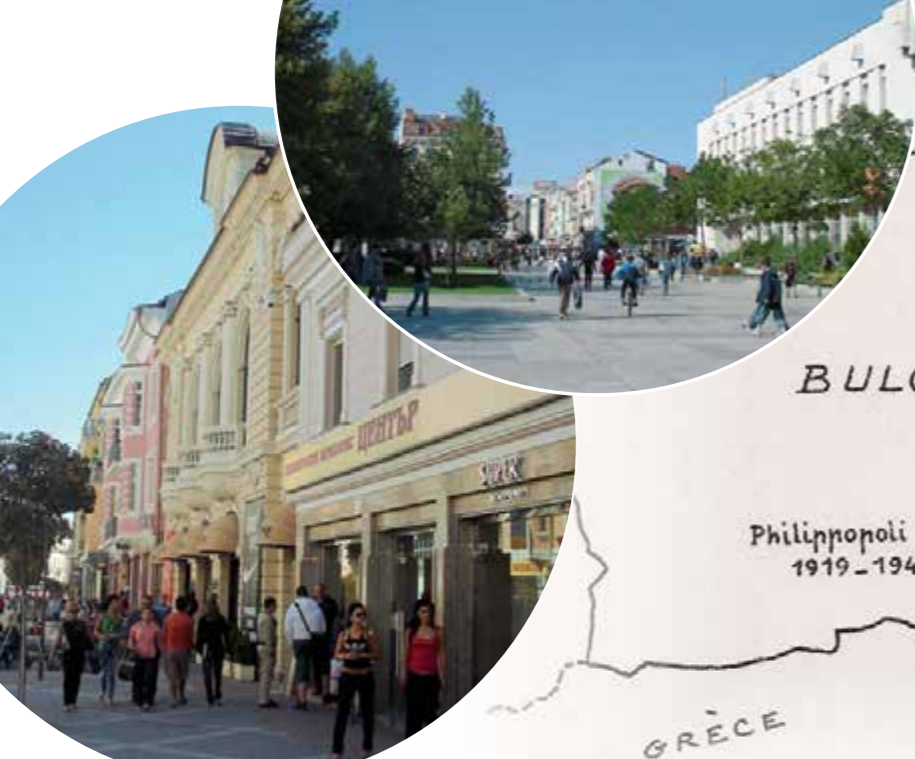


1868년 안드리노플에 있는 무료 학교

안드리노플의 병원







Plovdiv - 불가리아



안에서 그들의 한계들이 어떻게 불가리아 구석진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봉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녀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화로 인하여 한 사람이 백 사람 일을 하는 것입니다. »<sup>47</sup>

Emmanuel-Marie 총장 수녀는 허약한 건강 상의 이유로 수녀들을 현지로 가서 방문 하는 일을 못하였다. 그녀는 Galabert 신부를 온전히 신임하였다. Galabert 신부는 그러나 분원장 수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일은 Jeanne de Chantal Dugas 수녀가 맡게 되었다). 그는 수녀들이 도착한 후로부터 계속 감정적으로 종사할 관리하는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음을 그 자신이 다음의 글에서 고백하고 있다: « 어떤 상황에서 나는 지나치게 선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성격으로 보아 달리 어떻게 하기가 힘들었다. »<sup>48</sup>

1877년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봉헌자 수녀들과 마찬가지로 신부들은 교육사업을 포기하고 병자, 부상자, 피난민, 고아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였다... 사도직 보좌 신부는 « 봉헌자 수녀들이 가난에서 오는 구차한 삶의 모든 것을 쉽게 그리고 즐겁게 용납하며, 그녀들이 받아들인 가난한 병자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애덕으로 이들을 위하여 많은 결핍을 참아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sup>49</sup>

학교에서든지 좋은 병원에서든지 봉헌자 수녀들은 d'Alzon 신부와 Emmanuel-Marie 어머니로부터 파견되었음에 충실하여 매일 그들이 보여주는 얼굴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고 자애로운 얼굴이었다.



발칸반도 전쟁시의 안드리노플, 1911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47 - Lettres du P. E. d'Alzon à M. E.-M. Correnson, Bruxelles 1993, p. 235  
48 - Extrait de la Session d'Orsay - juillet 1990 « Aînés(es) Fondatrice » sur la Mission d'Orient, par le P. C. Monsch, p. 6  
49 - Ibid. 48

## 9- 창립이 뿌리내림

# 1868-1880

« 너희들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우선 앉지 않겠느냐? » (루카 14,28)

### 창설초기에

있었던 영웅적인, 첫 선발자들의 황급한 양성, 어설픈 그들의 수련소 생활과 불가리아의 개척자들을 대담하게 파견한 후에 성모승천 봉헌자 수녀회에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왔다: 그것은 그들의 어머니가 겪는 마음의 고통과 d'Alzon 신부와의 협조 사업 안에서 그녀들은 « 하느님의 집에 있는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처럼 » 성장하기 위하여 조금씩 수액을 퍼 내기 시작하였다.

종신서원 이튿날 젊은 총장 수녀는 Rochebelle 집에 있는 수련소에 정착하였는데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던 d'Alzon 신부는 그에게 헛된 위로는 하지 않았다. Marie de la Compassion 총장은 고통 속에서 이 사업을 탄생시켰다:

« 그렇습니다, 가엾은 어머니, 당신은 힘든 시간을 거쳐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 Emmanuel-Marie de la Compassion 총장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련 속에서 커다란 수확의 징조를 봅니다. 당신의 모델이신 성모님과 당신의 정배이신 우리 주님 사이의 갈바리아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열달 전에 당신은 오토이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는 Vigan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고통받을 것이고, 이처럼 죽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이처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은 나에게도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감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sup>50</sup> (1868년 6월 21일)

« 당신께 여러번 말한 바 있지만, 만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큰 고통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태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지요? (...) 마리, 당신은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 고통을 참으며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정도까지 가는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 딸이여 넓은, 광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Marie de la Compassion이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만들어내는 언짢은 일들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마시오. »<sup>51</sup> (1870년 1월 11일)

D'Alzon 신부는 여전히 Nîmes 교구의 총대리 신부였으며, 또 다시 교구 하나를 그에게 위임하려는 제의를 거절하였던 참이다. 태어난 지 여러 해가 되지 않은 수도회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그의 열망은 그로 하여금 창설자와 총대리 신부라는 직책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교황 비오 9세는 교구의 직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였고 d'Alzon 신부는 이 방침에 순종하였다.<sup>52</sup> (1864년 8월 22일)

1869년 11월 그는 자신의 주교, 몬시뇰 플라티에의 비서겸 신학자로 그를 따라 로마로 파견되어 바티칸 제 1차 공의회에 일에 참가하게 되었다. 열띤 논쟁 끝에 교황의 무류성은 1870년 7월에 공포되었다. D'Alzon 신부는 이 일에 모든 열정과 힘을 다 하여 싸웠다.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50 - Lettres du P. E. d'Alzon à M. E.-M. Correnson, Bruxelles 1993, p. 122

51 - Lettres du P. E. d'Alzon à M. E.-M. Correnson, Bruxelles 1993, p. 245-246

52 - Cf. Dossiers sur la Vie et les Vertus, vol. II, T. II, p. 744



Plantier  
몬시뇰  
(1813-1875),  
Nîmes의 주교





Nîmes를 떠난지 9개월이 흘렀다. 이 긴 기간 동안 로마에서 그는 Emmanuel-Marie 어머니와 아름다운 서신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다. 공의회 이야기로 가득 찬 이 편지들은 그녀와 그의 딸들에게 물려 준 고귀한 유산으로서 그들의 창설을 뿌리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 진정한 양성이었다. 이 편지들에서 그는 아버지의 힘차고 훌륭한 마음과 또한 더 멀리, 깊이 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시선으로 그들에게 아낌없이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우며, 조연과 방향 지도를 하였다:

« 내가 가진 분명한 확신은, 오늘날 민중의 회개를 위해서는 모든 것에 앞서 귀족의 형식을 놔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회가 열리는 것은 하느님의 친구들, 작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의 힘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가난과 낮춤을 통하여 세상은 구원될 것입니다. 나를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봉헌자 수녀들의 사업이 빛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만일 내가 그녀들을 위해 나의 약점이 가진 이유들 중의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겸손하고 준비된 정신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세상의 한 뿔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sup>53</sup> (1869년 12월 14일)

그의 편지들을 통하여 d'Alzon 신부는 봉헌자들에게 나약해지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는 수녀들이 성화의 길을 찾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간혹 그는 그녀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의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사순의 경우이다; 항상 그는 주님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녀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계신지를 상기시켰다. 그가 그의 딸들에게 말할 때는 마치 장군이 그의 부하 군인들에게 말하듯이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며 언젠가는 순교의 월계관을 얻도록 하였다: «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의 희생자가 되는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용기를 증가 시키십시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뜨겁게 타오르는, 또한 빛나는 램프가 되게 해 달라고 청원드리십시오. 세례자 요한 성인처럼 만방에 주님의 길에 앞서가는 야망을 가지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이 더 잘 알려질 수 있는 곳 어디에나. »<sup>54</sup> (1869년 12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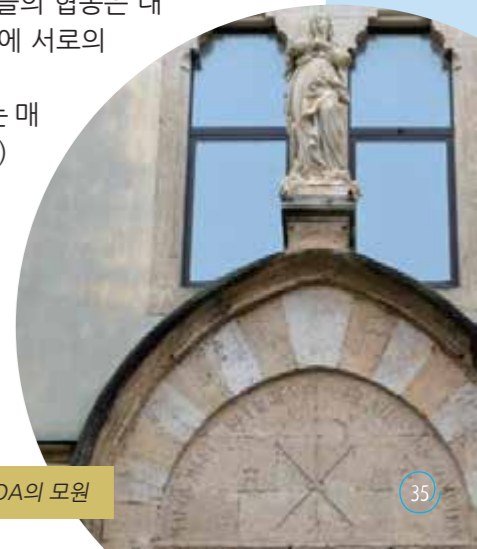
d'Alzon 신부는 그녀들의 « 어머니 »에게 품고 있는 깊은 자애로움을 자주 노출시켰다. 그녀의 허약한 건강에 d'Alzon 신부는 많은 주의를 기울였고 얼마나 그녀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비위를 맞추지는 않았다. « 아! 마리! 나는 당신이 더 이상 여자이기를 원하지 않소, 당신이 남자이면 좋겠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오? »<sup>55</sup> (1870년 2월 15일) 그는 이렇게 유머를 잃지않고 써 보냈다. 그의 편지를 계속 따라가 보면, 그는 끊임없이 다시 말하곤 하는데 그녀가 봉헌자 수녀들에게 넓은 정신과 교회에 정말 사로잡힌 정신을 그의 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 만일 하찮은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 딸들에게 가톨릭 정신의 광대무변함을 주는 일에 전심을 쏟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가톨릭 교회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이 목표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sup>56</sup> (1870년 3월 20일)

로마에서 돌아온 d'Alzon 신부는 봉헌자 수녀들에게 강연이나, 또는 매일 설교를 통하여 계속 양성을 시켜나갔다. 그는 또한 Emmanuel-Marie 총장을 도와 수도회 회헌의 기초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 회헌은 점점 더 총장 수녀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들의 협동은 대화와 상호 순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여러가지 결정을 취하는 일에 서로의 의견을 물어 의논하였다.

« 당신과 같은 협력자, 당신과 같은 딸을 내게 주신 우리 주님께 나는 매일 감사드리고 있음을 당신께 말하고자 합니다. »<sup>57</sup> (1878년 4월 5일)

커져가는 수도회를 위해서도 « 장막을 넓히는 » 것을 생각해야 하는 때였다. 성소자가 많아져 Rochebelle의 집은 너무 작게 되었다. 더구나 집 계약이 끝나게 되어 있었다. 곧 수련소를 Nîmes 중학교의 부속 건물에 두는 생각을 해 보았다. 결국 Emmanuel-Marie 총장 수녀는 가족들의 관대함 덕분에 Nîmes 의 Segurier 26번지에 있는 집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집은 훗날 봉헌자 수녀들의 모원이 되었다. 그녀들은 1873년 3월 11일 그곳에 정착하였다. 얼마 되지않아 1873

53 - Lettres du P. E. d'Alzon à M. E.-M. Correnson, Bruxelles 1993, p. 235  
54 - Lettres du P. E. d'Alzon à M. E.-M. Correnson, T. VIII, p. 83  
55 - Lettres du P. E. d'Alzon à M. E.-M. Correnson, T. VIII, p. 202  
56 - Lettres du P. E. d'Alzon à M. E.-M. Correnson, T. VIII, p. 275  
57 - Lettres du P. E. d'Alzon à M. E.-M. Correnson, T. XII, p. 420



년 10월에 Emmanuel-Marie 총장 수녀는 학교를 열었고, 1876년 5월에는 기숙사를 열어 d'Alzon 신부는 정기적으로 와서 설교를 하고, 고해성사를 해주고 또 주일미사도 집전하였다. 그러나 아직 소성당은 없었다.

그래서 소성당을 건립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878년 6월 27일, Marie Correnson이 Rochebelle에 도착한 << 그 화제에 오른 유명한 6월 27일 >> 을 기념하며, d'Alzon 신부는 거룩한 건물에 초석을 놓는 돌을 강복하는 기쁨을 누렸다. 돌의 움푹 들어간 자리에는 이 날의 서약서<sup>58</sup> 를 봉인한 튜브관을 넣었다:

<< D'Alzon 신부가 이와같이 한 것은, 이 돌을 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봉헌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창립 안에서 초석으로 놓은 돌을 상기케 하기위함이었다. >><sup>59</sup>

1년 후 같은 소성당에 d'Alzon 신부는 그의 딸이 << 엠마누엘-마리 >>라고 명명한 종을 강복하러 왔다:

<< 엠마누엘은 당신의 이름이고, 마리는 제 이름입니다. 이 종이 가진 두 이름의 일치하는 같은 목표를 두고 일하는 우리 마음이 가진 일치의 이미지입니다. >><sup>60</sup> (1879년 4월 14)

D'Alzon 신부는 자신의 무덤을 소성당 안에 안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는 죽은 후 여기서 자신의 자녀들 곁에서 휴식하기를 깊이 열망하였다. 그는 쇠약해지는 자신을 보고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880년 10월 11일 바로 이 봉헌자들의 소성당에서 그는 1860년에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였는데 그 미사가 그의 마지막 미사였다.

그의 영적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의 마지막 날들을 Nîmes의 성모승천 중학교에서 마칠 수 있는지를 의논하였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성모승천회 수도자들은 수도자들을 추방시키는데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평판이 좋았고, 그들의 활동이 많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경시청장을 통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이 난국을 모면하는데 성공하였다.

58 - L'Assomption, Biographies - Souvenirs-Bonnes (Euvres, 1878 & 1879, Nîmes 1879, p. 100  
59 - Cf. E. S., p. 1213  
60 - Lettres de M. E.-M. Correnson, Bruxelles-Paris 2005, p. 82-83  
61 - Dossiers sur la Vie et les Vertus, vol. II, T. II, p. 1009

1880년 11월 5일 그는 병자성사를 받았다. Emmanuel-Marie 어머니가 그의 곁에 오자 그는 눈에 눈물을 가득담고 그녀를 맞아들였다: << 당신에게 약속한 성사들을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Emmanuel Bailly 신부가 그 일을 이제 맡아 시작했습니다. >><sup>61</sup> 11월 16일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만났으며, 이 만남에서 d'Alzon 신부는 그의 사후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시련들을 경고하여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주고, 그의 모든 딸들에게도 축복을 주었다. 11월 21일 성모 자헌 축일, 12시 삼종기도 시간에 그는 성모승천 중학교 자신의 방에서 평화롭게 선종하였다.



D'Alzon 신부와 Correnson 어머니의 무덤



# 10 피에타 곁에 선 창설자 어머니의 눈물 1880-1900

«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 »  
(요한 19,25)

## Emmanuel-Marie 어머니

마음 속에는 그의 « 아버지 »가 로마에서 그에게 보내 온 편지의 내용이 계속 울려왔다. 38세인 그녀가 계속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얻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 마리, 마리, 우리 위대한 일을 합시다. 세상 사람들 눈에 큰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조금씩 더 봉헌하고자 하는 그분의 눈에 가치있는 일을 합시다. »<sup>62</sup> (1870년 5월 16일)

D'Alzon 신부는 하늘에서 그녀를 인도하고 조언을 하겠지만 그녀는 봉헌자 수녀회의 전체 관리를 누가 맡게 될는지 자문하였다. 지금 창설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요청에 따라 d'Alzon 신부는 성모승천 아오스딩 수도회의 총장을 겸임하면서, 또

한 창설자로서 6년 기간 실험적으로 이 역할을 맡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봉헌자 수녀들이 그들의 형제인 성모승천회 수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도 자신들 고유의 관리체제를 지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1876년 9월 22일 Galabert 신부에게 쓴 편지에서 볼 수 있다: « 봉헌자 수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는 관리하기 보다는 지도를 하십시오... »<sup>63</sup>

D'Alzon 신부의 사후에 François Picard 신부가 만장일치로 총장 신부로 선출되었다. 그는 1882년부터 Emmanuel-Marie 총장 수녀로부터 6년 동안을 예정으로 수녀회의 통치권을 맡고자 하였다. 그리고 Nîmes에 있는 수련소를 파리로 옮기기를 원하였다. 참사회의 승낙으로 Emmanuel-Marie 총장 수녀는 수도회의 자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금 끝을 맺은 통치권의 경험을 갱신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도회의 통치권을 총장 수녀에게 한정된 회헌에 따른 것이다.

비록 법적 하자가 없는 이 선택에도 불구하고 피까르 신부는 파리 부근에 2 번째 수련소를 열었다. 그리고 봉헌자 수녀들은 Emmanuel-Marie 공동 창설자와 피까르 신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되었다. 선교에 나간 수녀들은 (피까르 신부를 무조건 따르는 Jeanne de Chantal Dugas 수녀의 영향으로) 대다수가 피까르 신부를 선택하였다. Emmanuel-Marie Correnson 총장 수녀는 Mère Marguerite-Marie Chamska를 파견하였으나 그녀는 투표가 끝난후에 도착하였다. 로마는 이 투표의 결과대로 1882년 10월에 수도회의 분열을 인정하였다. Nîmes의 봉헌자들과 Paris의 봉헌자들의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열은 봉헌자 창설자의 마음을 무너트렸다. 이 두 갈래의 일치는 1926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는데 창설자는 이 일치를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것이었다.

Emmanuel-Marie de la Compassion 어머니

1891년에 또 다른 시련이 Emmanuel-Marie Correnson 총장 수녀에게 닥쳐왔다. 교구청에서의 소환장이 그것이었다. 이제 수도회가 지닌 명칭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성모승천회 여러 다른 갈래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돈이 그 이유였다. 1893년 2월 13일 로마에서 온 칙서가 성모승천 봉헌자회를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교구청과의 소송은 중지부를 찍었는데 그 기간은 2년이 걸렸다.

Nîmes의 봉헌자 수녀들은 그들의 총장 수녀가 이 고통스러웠던 기간 동안 매일같이 정원으로 나가 칠교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눈물을 Pietà의 성모 눈물에 드리며 성모의 봉헌에 자신의 봉헌을 일치시키는 것을 보았다.

이 고통에 찬 총장 수녀의 점점 허약해 가는 건강 앞에서 로마는 1897년 총회를 열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찾도록 요구하였다. Emmanuel-Marie 어머니는 조용히 로마에서 내린 결정에 응하고, 평수녀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 부총장이었던 마르가리트-마리 Chamska 수녀가 9월 18일 총장 수녀로 선출되었다.

힘든 책임감에서 벗어난 Emmanuel-Marie 어머니는 자신의 허약한 체질을 관대하게 인정하므로써 또한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봉헌하므로써 수녀회를 계속 키워 나가게끔 하였다. 그녀는 1900년 7월 23일까지 영성체를 할 수 있는 Séguier 길에 있는 경당에서 매일같이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녀가 종부성사를 받은 24일 이른 오후에 공동체는 그녀의 침대에 모였다: 그녀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한 듯 보였다.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었고, 경당으로 가기에 앞서 수녀들은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녀를 포옹하였다. 수녀들이 저녁기도를 노래하고 있는 동안 그의 정배에게 온전히 맡기며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을 정해진 때에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수녀회 가족들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즐기게 될 것은 하늘나라에서 일 것이다. 그녀는 수녀회 가족을 위하여 매일같이 어머니로서의 가장 훌륭한 마음을 봉헌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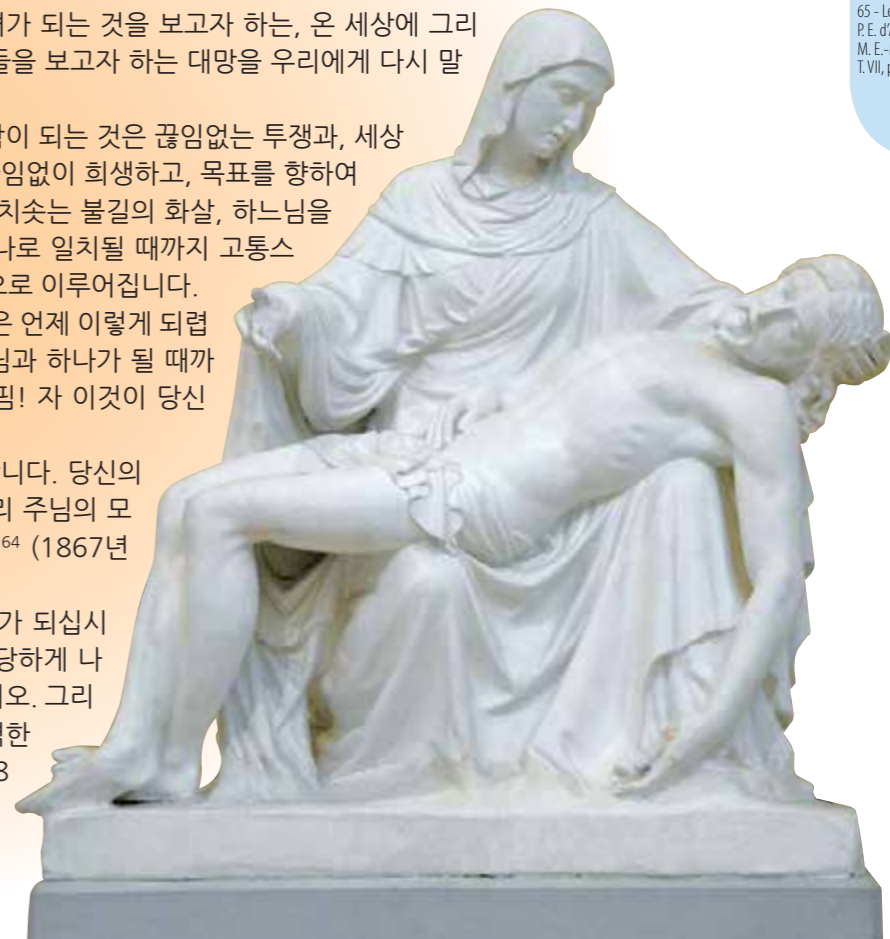
D'Alzon 신부가 자신의 딸인 Marie Correnson과 자신의 딸들 하나 하나에게 가지고 있던 그 야심을, 딸들이 성녀가 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는 딸들을 보고자 하는 대망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다!

«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과, 세상과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희생하고,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 불길의 화살, 하느님을 향하여 날아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일치될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랑의 화살과 같은 투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오! 사랑하는 작은 어머니, 당신은 언제 이렇게 되렵니까? 진실된 정배, 끊임없이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당신을 태워버리는 진정한 세라핌! 자 이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바입니다...

당신은 번지는 불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당신께 맡겨진 우리 주님의 모든 정배들을 태우는 불길입니다. »<sup>64</sup> (1867년 5월 19일)

« 딸이여, 딸이여, 진정한 성녀가 되십시오. 이것이 내 영혼 안에서 가장 정당하게 나오는 외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가장 높은곳으로, 가장 완벽한 길로 가기 시작하십시오. »<sup>65</sup> (1868년 8월 14일)







# 전 세계를 포괄하는 비약



## D'Alzon

신부와 Emmanuel-Marie Correnson 수녀가 자신들의 삶을 봉헌함으로써 땅에 떨어져 씨가 뿌려진 성모승천 봉헌자들의 아주 작은 씨앗은 천천히 돌아왔다. Cévennes 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창설자들과 첫 회원들이 나왔고, 수녀회의 역사는 불가리아라는 명확히 정해진 장소가 특별한 선교 대상지라는 목표 아래 조출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일세기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1세기를 시작하는 지금 수녀회의 모원은 아직 Nîmes에 있으며, 총원은 Paris에 있지만 성소자들이 프랑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수녀회는 불가리아와 동방보다도 더 멀리 나아가, 아프리카에 넓은 문을 열고, 라틴 아메리카에 뿌리를 내리고, 현재는 아시아에도 뿌리내려, 결론적으로 20여 개 나라에 퍼져 국제 수녀회가 되었다.

물론 봉헌자들의 역사는 교회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유럽에서의 교회는 노쇠하였고, 성소자의 부재로 교회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으나, 동시에 이 세상 다른 지역에서는 성소자들이 풍요롭게 태어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비약은 또한 창설자들이 선교정신에 끝까지 정성을 쏟은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겠는가? **《 딸들이여, 그대들은 바다 건너 저 멀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

현재 총장 수녀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사실, Felicia Ghiorghies 수녀는 루마니아인이다. 반면 10년 전부터 총 참사회는 여러 다른 대륙에서 온 수녀들로 구성된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수련장들 중의 한 사람은 콩고에서 프랑스로 왔고, 수련자들은 해외로 실습을 떠난다... 국제화, 대륙화, 국제문화 토착화, 이 많은 모습들은 개방된 정신을 지녔던 그리고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의 필요성에 열린 마음을 가졌던 창설자에게 경의를 표하게 한다.

OA의 Myriam Franck 어머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상. 1891



파리 총원에  
있는 동방  
선교 스테인드  
글라스



**동방**

**동방** 현자들 첫 역사의 발걸음은 불가리아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 이어 봉헌자들은 더욱 활발하게 동방으로,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곳은 어디든지 가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유연성은 Emmanuel-Marie de la Compassion 총장 수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뒤를 이어가는 수녀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만일 봉헌자들에게 맡겨진 주요 첫 사업 계획이 학교였다면, 여러 사건들은 이 계획의 방향을 유연한 방법으로 수정하게 만들었고, 봉헌자들은 동방에서 여러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특히 계속 발발하는 전쟁과 전염병이 그 원인이었다.

Andrinople에 첫 공동체를 세운지 10년 후, 1877년에 러시아와 터키의 전쟁이 선포되었다. 러시아인들은 불가리아를 통과하며 Andrinople 시(市) 앞에서 몇 달 동안 시를 포위하였다. 봉헌자들은 Galabert 신부의 허락을 받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집과 학교를 부상자들, 병자들, 환자들과 피난민들에게 내어주고 버려진 아이들을 받아 들였다. 진료소, 고아원과 병원을 건립하는 사도직의 첫 장은 이 수녀들과 함께 시작 되었다.

1913년의 안드리노플



플로디프, 불가리아

1913년 발칸 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터졌다: Andrinople은 한 겨울에 또 다시 5 개월 동안 포위되어 포격을 받았다. 신부들과 수녀들은 민중들 한 가운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림과 전염병에 노출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민중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헌신하였다. Jeanne de Chantal 총장 수녀는 Ismidt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천의 포로병들과 민간인들을 방문하고 돌보아 주었다. 이 전쟁 기간 동안 봉헌자들이 지칠 줄 모르고 보여준 헌신은 현지에서 새로운 성소자들을 부르게 할 만한 값진 것이었고, 또한 정교회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시대에 동방선교에 나간 봉헌자들의 수는 약 250명이었고, 120명이 프랑스에서 그리고 130명이 그리스, 아르메니아, 루마니아, 터키, 세르비아, 슬로바니아와 크르와티에서 왔다.

1922년에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봉헌자들의 학교는 또 다시 피난민 수용소가 되었고, 15,000명의 그리스 피난민들이 Haïdar Pacha 근처의 Selimieh 병사(兵舍)에 비참하게 수용되었다. 수녀들은 장티푸스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떠났다. Eftyki 수녀(그리스)와 Immaculata 수녀(아르메니아)는 이 전염병으로 희생되었다.

Lausanne 협정에 따라 갑작스런 후퇴로 동방에서 추방 당한 봉







헌자들은 더 가까이 있는 동방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Yougoslavie의 Belgrade, 그리고 비잔틴 전례를 거행하는 T. Frentiu 몬시놀의 요청에 따라 1925년 루마니아에 도착하여 성모승천 수도자들과 협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련은 1948년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루마니아에서는 공산주의가 창설되었고 그들은 임시로 그들의 체제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11월에 수녀들은 병원에서는 계속 일을 하면서, 3일 안으로 그들의 집을 떠나야만 했다. 불법 검거를 하는 체제가 그들에게 닥쳤다. 그 때부터 동방은 《 황폐한 관구 》 가 되었다: 철의 장막 뒤에서 일련의 수녀들은 깨어서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수녀들은 프랑스로 돌아왔고, 그들 중의 두 수녀는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1960년대 초에 석방되었다). 이 시대에 총장들 이었던 Marie-Augustine VIGNE, Christiane-Marie MELLERIO et Georgette-Marie FAYOLLE 수녀들은 수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몇 번씩 비밀히 방문하였다.

부카레스트에 있는 Panduri 병원



루마니아, Sucevita에 있는 정교회 수도원

1989년 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몇몇 봉헌자들은 아직도 Bucarest 와 Bacau (루마니아), Istanbul (터어키)에 비밀히 있었다. 공산주의 체제가 끝나자, 루마니아 관구는 다시 태어났고 헌지에서 많은 성소자가 몰려들었다. 새로운 계획들이 성모승천회 신부님들과의 협력 하에 빛을 보아 봉헌자들이 흑해 주위의 그들 본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흩어졌던 수녀님들이 점차적으로 모이고, 수련자들을 맞아들이고 양성시키며, 사도직 계획이 이루어졌다. 1992년 루마니아에 수련소가 열렸고, 뒤이어 Moldavie 와 Transylvanie 에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3년부터 봉헌자들은 불가리아의 Plovdiv 에 새로운 창설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86년 전에, 46년 전에 떠났던 Moscou와 Jérusalem 에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큰 믿음의 정신, 사건들 앞에서 취하는 유연성, 가난한 이들과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온전히 처분되어있는 자세, 제시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개방성, 시련 후에 다시 얻는 용기, 이것이 그 모든 해 동안 동방선교 안에서 맺어진 특성이 아니겠는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스크바, 러시아







유럽

**창**설 초기에 성모승천 봉헌자들에게는 두 가지 큰 주축이 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프랑스에 그들의 요람을 두고, 또 다른 하나는 « 해외 선교 »의 땅, 오직 동방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들의 뿌리는 프랑스에 있다. 프랑스에는 그들의 수련소와 그들에게 맡겨진 많은 교육사업이 있고, 가장 원래의 사도직 장(場)이 있는 곳이다: 매일같이 그들의 형제들인 성모승천회 회원들과 Bayard 출판사와 La Croix 신문 발간 사업에서 하는 협동이다. 1883년 이래 봉헌자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일간 출판물에 관한 직업을 익혔다.

그리고 동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녀회가 선택한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외적 사건들이 있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1901년에 설정된 교권반대주의 법에 따라 수도자들이 추방되었다. 창설자의 뒤를 이어 총장이 되었던 말가리트-마리 참스카 수녀는 해외에다 안정된 피난처를 찾으려 수녀들이 꿀벌처럼 인접 국가에 분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참스카 총장 수녀는 Nîmes 에 있는 공동체를 스위스에 있는 시온 주(州)의 Bramois 로 이전시켰다. 이곳에서 수녀들은 몇 달 동안 머물렀다. 또 다른 수녀들 그룹은 1902년 이탈리아의 Florence 로 갔으며, 아르메니아에 있는 집 세 채와 1894년 창설자 총장 수녀의 주도로 첫 공동체가 태어난 벨기에의



마르그리트-마리 Chamska 어머니

Bayard 출판사 작업실에서의 봉헌자 수녀들



Hulsberg, 네델란드

Marchienne-au-Pont 에 다른 수녀들을 이전시켰다. 그런 다음 1903년 벨기에의 수녀들을 네델란드로 이전 시켰는데 이곳의 Roermond 주교가 큰집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네델란드에서의 풍요로운 선교의 태동이었다: 1919년부터 성소자들이 속속 들어와 그곳에서 수련소가 태어나고, 새로운 공동체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의 분원 창설도 1903년에 이루어졌다. 수녀들이 이전된 여기 저기



청소년 사목, 이태리



Froyennes, 벨기



Russie 1995

Roumanie 1925

Angletterre 1903

Pays-Bas 1903

Italie 1902

Belgique 1894

Bulgarie 1868

France 1865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런던, 영국

에서 봉헌자들은 교육, 사회 사목을 발전 시켰으며, 학교와 진료소, 탁아소를 열었다. 이런 사업들은 항상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마음을 활짝 열어 처분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외적인 사건들에 순응하면서 봉헌자들은 유럽과 북미에 퍼져 나갔다.

Worcester, Boston (미국) 에 있는 성모승천 신부들의 부름에 따라 1956년 수녀들은 고등수업을 하는 중학교에 봉사하면서 공동체를 열었다. 수녀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도직이 발전됨에 따라 미국의 공동체들은 네덜란드 관구에 속하게 되었다. 수녀들은 1977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북 아일랜드에서는 1969년 Convey 추기경의 요청으로 Armagh 에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짧았다: 1972년 가을 수녀들은 그들의 집 앞에 바리케이드가 높이 쳐지는 것을 보았고 이 불안정한 분위기에서 장상은 수녀들이 이 지역을 떠나기를 원하였다. 아일랜드에서의 선교가 재 시도되는 것을 보려면 1983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번에는 Dublin 에서 멀지 않은 아일랜드 남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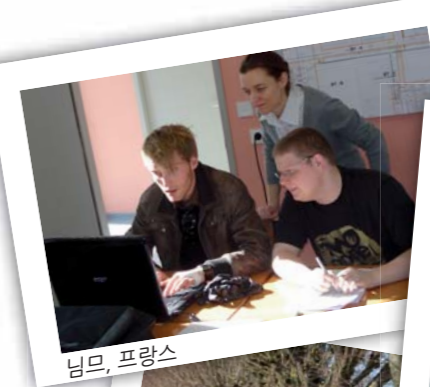
제 2차 바티칸공의회 후, Mère Christiane-Marie Mellerio 총장의 임기 중 프랑스 일련의 수녀들에게는 새로운 타입의 파견이 이루어졌는데 그 목표는 한창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였다: 작은 공동체들은 파리 외곽의 대

릴르, 프랑스



중들이 사는 곳이며 이 지역 한 가운데서 민중들은 점점 비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지역이었다. 선교에 대한 주교들의 근심에 봉헌자들은 자신들 삶의 봉헌에 유연성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난에 맞추는 능력을 갖추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 노쇠해가는 유럽에서는 봉헌자들이 끝까지 살며 지키는 그들의 표어인 << 저를 보내소서 >>라는 도량 넓은 응답에 맞출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것이 출판사 혹은 기독교 통합에 관련된 대화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이든, 혹은 비기독교화 되어가는 대도시 외곽지대이든 마찬가지이다.



남프, 프랑스



보케르, 프랑스



총원, 파리







아프리카

# Marie de Crisenoy

의 말을 빌리자면, 봉헌자 가족들의 여정은 《 황폐한 동방과 서양의 기독교 국가에서 비약적인 검은 교회로 이전한다 》: 또 다시 봉헌자들은 역사적 사건들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들 앞에서 유연성을 보였다. 그들 스승님의 말에 충실하며 봉헌자들은 한 나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한 곳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곳으로 가라... 》

이렇게 하여 1926년부터 총장이었던 Berthe-Marie Paré 수녀는 1935년 터어키 공동체의 문을 닫고, 같은 해 성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Congo Belge의 Beni에 자리를 마련했다. 이것이 봉헌자들의 아프리카에 뿌리 내리는 첫 발이었다. 이곳에서 봉헌자들은 성모승천회 형제들과 합류하였는데 그들은 1929년부터 현지에 있었고, 새로 태어나는 교회들이 지나치게 남성화 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 수녀들이 없는 한 우리의 선교는 어머니 없는 가족과 같습니다... 》<sup>66</sup> 라고 선교 책임자인 Henri Piérard 신부는 베르트-마리 파레 총장 수녀에게 써 보내어 봉헌자들이 그들 옆에 있어야 함이, 특히 아프리카 여성들의 교육을 목표로 할 때,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멀고도 필수적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두 명의 봉헌자들이 Lille에서 열대지방에 관련된 의학 공부를 하며 원주민들의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Beni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갓난 고아 아기들이 수녀들에게 맡겨졌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고아원이 세워졌다. 그런 다음, 초등학교, 진료소, 조산원, 재봉소가 세워졌다. 이러한 사도적 활동이 발전

된 후, 1938년 두 번째 공동체가 Manguredjipa에 열렸다.

Congo Belge 봉헌자들은 값진 공헌을 하였는데, 우선 교육 분야와 여성 해방 분야였다. 1940년 이와 같은 견지에서 Marie-Michaël Rainfray 총장 수녀는 Muhan에 Sainte-Mari라는 다른 공동체를 열기로 결정하였고, 이곳에서 봉헌자들은 아프리카 소녀들의 양성을 맡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1948년 3월, 봉헌자들은 Bunyuka에 정착하였는데 이곳에 Manguredjipa에 있던 고아원을 이전시켰다. H. Piérard 몬시뇰은 교구 수도회를 창설하는 허가를 얻었음으로 봉헌자들에게 새로운 수녀들의 양성을 요청하였다. Joseph Bruijn 수녀(OA)는 성모자헌 작은 자매들 수녀회(PSP)의 초대 총장 수녀 겸 양성 책임자 직을 맡게 되었다.

성모승천회의 H. Piérard 주교는 Butembo에 있는 농촌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열 목적으로 봉헌자 수녀들을 불렀다. 1943년 8

월에 성모승천의 성모 기숙사 가 문을 열었다. 몇 년

Butembo의 초등학교, 콩고 민주공화국



Butembo의 병원,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샤, 콩고 민주공화국



Kenya 2014

Gabon 2013

Ouganda 2011

Tunisia 2010

Burkina Faso 2000

Tanzanie 1998

Rwanda 1981

Côte d'Ivoire 1975

Congo 1935





안되어 그 명성은 널리 퍼졌다. 학교는 큰 성공을 거두어 성소자가 속출하는 묘판이 되어 봉헌자들은 1959년 현지에 원주민 소녀들을 위한 청원자들의 집을 마련하였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수련자들은 벨기에로 보내져 양성을 받게 하였고, 1969년 콩고에 수련소를 설립할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봉헌자들은 콩고인들의 보건 위생을 개선하는데 요청을 받았다. 1949년 Musienene에 새로운 공동체를 창설하여 원주민을 돕기 위하여 병원을 설립한 벨기에 의사를 돕도록 하였다. 루마니아 의사 출신인 Renée-Guido Popa 수녀는 1988년 까지 이 병원을 운영하였다. 같은 시기에 봉헌자들은 Mutwanga에 또 다른 병원을 맡았다.

1964년 Congo Belge은 폭동이 불러대는 어려운 한 해였다: 시민 전쟁의 잔혹함과 피해는 봉헌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잠정적으로 떠나게 만들었다. 긴장이 가라앉자마자 일부는 충실하게 제 자리로 돌아왔다. 몇 년 후 1970년에서 1973년 사이, 3개의 새로운 공동체가, Butembo와 적대림 한 가운데 있는 Mangina, Beni-Cite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1975년 9월에 콩고 정부는 교육을 국가화시키려는 시도로 학교를 운영하는 수도회를 추방하려 했으나 이 시도는 실패하였다. 1977년 학기가 시작되자 봉헌자들은 다시 불림을 받고, 그들의 학교를 다시 인수받게 되었다.

70년대 콩고 선교는 8개의 공동체에 약 40명이 있었으며, 이 성장은 아프리카에서 새로이 팽창하는 기원이 되었다. 국제화는 아프리카 대륙의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콩고 수녀들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를 위한 선교사가 되었다.

Rukomo, 루완다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리하여 Georgette-Marie Fayolle 수녀가 총장직을 맡은 임기 동안에 서부 아프리카에 공동체 창립 계획이 연구되어, Cote d'Ivoire에 있는 Napieledougou로 정해져 1975년 12월 봉헌자들은 이곳에 정착하였다. 콩고 수녀 한 분이 이곳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의 복음화는 쉽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 교도들 이거나 무속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얼마 후 다른 콩고 수녀들이 Rwanda로 파견되었다. 봉헌자들이 보건 위생 분야에서 종사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 정착한 것은 1981년 이었다. 이 분야에서는 할 일이 많이 있었다. 90년대 초에 정치적 분위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인종 학살이 비밀히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현지에 있던 봉헌자들은 1992년 2월 25일 두 명의 수녀들이 초기 순교자들처럼 이유 없이 학살을 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했다: 그 두 명 중 한 수녀는 콩고에서 의사로서 헌신하였고, 방금 이곳에 도착하여 Rwanda의 청소년들에게 불어를 가르치는 르네 기도 포파 수녀였고, 다른 한 명은 원주민 청원자 Françoise Nyirangendo 이었다. 초상집이 된 공동체는 문을 닫고 1995년 선교가 다시 재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었다.

시네마티알리,  
아이보리코스트



Renée-Guido  
Popa 수녀



Ferke, 아이보리코스트

1998년에는 탄자니아가 선교 대상지가 되었다: 성모승천회의 형제들이 자리잡은 지 3년 후에 봉헌자들은 Arusha 주교의 부름을 받았다. 수녀들은 점차적으로 여러 분야에 참여하였다: Arusha 와 Wasso 청소년들의 교육, Loliondo의 교사들을 위한 양성, Massai 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Wasso 병원 등이 있다, 비중이 큰 공동체들에 대한 사목과





Wasso, 탄자니아

교리공부에 대한 기여, 주교 관할에 있는 여러 구조 가운데서 Arusha 현지 교회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였고, 가장 빈곤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는 봉헌자들이 Tanzanie에서 한 선교의 몇몇 부분이다. 이 지부에서는 동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양성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봉헌자들은 점차적으로 문화의 다양성 가운데서도 탄자니아인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있다.

2000년은 Burkina-Faso의 차례이다! Bobo-Dioulasso 의 Anselme Sanon 주교는 Cote d'Ivoire에 있는 봉헌자들을 자신의 교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하였다. 그곳은 복음화 활동에 유리한 곳 같았고, 젊은이들은 수도자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1년 봉헌자들은 Brazzaville에 도착하여 수도생활에 대해 젊은이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가 불안정하여지자 공동체는 Kinshasa로 이전되었다. 수녀들은 2007년에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되었고, 2013년 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들의 선교사업은 교육, 보건, « Saint Kisito » 본당에서 사목하는 일이었다.

젊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1935년에 심겨진 봉헌자들의 나무 가지는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여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 강인한 믿음과 많은 고통을 봉헌함으로써 얻은 자양분 덕분이다. 2011년에는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여 아프리카 여러 다른 나라로 확장되었다: 중앙 아프리카에는 Kinshasa 에 3 개

보보 디올라소, 부르키나-파소



마사이 가족



의 공동체가 있고, 서부 아프리카에는 Cote d'Ivoire 에 2개의 공동체와 Burkina-Faso 에 2 개의 공동체가 있다 ; 동 아프리카에는 Rwanda의 4개의 공동체, Tanzanie에 5개의 공동체가 있다. 2011년 Ouganda 에 공동체 1개가 문을 연 일이나, 2014년 Kenya와 Gabon에 각각 1개의 공동체가 창립된 것은 복음화의 부름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성장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표징은 Congo지부가 자기 차례가 되어 세계 만방에 80명의 봉헌자들을 선교사로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

Kasese, 우간다



루코모, 루완다



Ngoma, 우간다





## 남미

**아**프리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 봉헌자들이 남미를 향한 것은 성모승천회 출신 주교들의 바톤을 물려받은 교회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첫 뿌리를 내리는 일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늦은 편이었다. 이 일은 20세기 중반에 가서야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남미의 첫 선교는 1964년 브라질에서 이루어졌다: Jales에 있는 성모승천회 출신 주교Horthuis 몬시뇰은 자신의 교구에 자리잡은 성모승천회 형제들을 도와 보건 위생 분야에, 훗날에는 사목위원들의 양성과 교리 분야에 보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브라질에 파견된 수녀들은 벨기에 수녀들과 한 분의 프랑스 수녀이었다.

이어서, 먼저 Jales의 Santa Fe do Sul, 그리고 Andradas와 Campinas에 다른 공동체 설립이 이루어졌다. 1993년 봉헌자들의 선교적인 열정과 어려움에 처한 주교들의 부름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Tapaua로 방향을 잡게 만들었다. 봉헌자들은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가장 버려진 지역에서 헌신을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담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였다.

즉 그들은 두 달에 한 번씩 배를 타고 떠나 원주민들과 부락민들과 함께 강 길을 따라 살면서 몇 주씩 선교를 하였다;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기 위하여 봉헌자들은 모두 자신들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었고, 작은 배 선상에 있는 본당은 작은 화덕과 매달린 그물 침대와 함께 그들의 집이 된다. 몇 년 후 봉헌자들은 아마존의 수도인 Manaus에 있게 된다.

1980년 달중 신부님 100주년 기념 축일 행사에 성모승천 가족들은 모두 한데 모여 다양한 선교활동에 데 대한 경험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얻었

타포아, 아마조니

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빛을 보았다. 칠레에 있는 성모승천회 형제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봉헌자들은 1982년 그들의 첫 번째 뿌리를 이곳 Valparaiso에 내렸고, 뒤이어 Rengo와 Santiago로 이어져 공동체 설립이 이루어졌다. 본당활동, 진료소, 또 다른 활동을 통하여 봉헌자들은 현지 주민들과 진정한 협동정신을 맺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봉헌자들은 2007년까지 그곳에서 활동을 벌였다.

1995년과 1999년 사이에 봉헌자들은 Haiti에서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상황은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게끔 만들었다.

Paraguay를 향한 시도를 말하자면, 이번 일 역시 만남과 교환에서 이루어진 열매라고 하겠다: 로마로 유학 온 Paraguay의 사제들과 이탈리아의 봉헌자 수

타포아, 아마조니



브라질-파라과이 지부의 수녀들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Paraguay 2007

Brésil 1965



녀들이 맺은 우정은 하느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일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성령에 순종하는 몇몇 수녀들은 이 사제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공동체 설립을 요청하는데 응답하였다. 2007년 이탈리아 수녀들과 브라질 수녀들에 의해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그 목표는 비중이 큰 공동체에 흡수되어 젊은 소녀들의 성소자 발굴을 돕는 일이었다. 2015년 남미에 수련소가 문을 열 예정이며,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의 젊은 소녀들을 맞을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수녀들은 월급을 받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본당 일, 사회 활동, 여러 가지 것들, 땅에서 소출 되는 것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들은 또 한편 교리 지도와 현지 공동체에 활기를 주며 컴퓨터, 언어, 그림 등을 지도하고 있다.



sqn Lorenzo, 파라과이

젊은 수녀들이 추는 파라과이 춤



San Lorenzo, 파라과이

이것이 달종 신부님이 엠마누엘-마리 창설자에게 주신 바오로 사도의 표어 «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까 » (1고린 9,22) 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전에 성모승천회의 한 신부님이 쓰신 대로, « 수도회는, 그 회원들의 성화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소명을 실현하는 방법 안에서 창설자로부터 물려받은 독창적인 흔적을 보게 된다. 이 흔적들은 창설자의 개성과 행동을 특징지어 준다... »<sup>67</sup>.

«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까 », 이것이 바로 토착화의 비결이며, 봉헌자들이 현실적으로 의당히 낯설은 것에 자신을 맞추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비결이다.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67 - P. Cayré Fulbert,  
AA : Mémoire  
assomptionniste,  
Ecrits au fil des ans,  
1850-2000,  
Ed. du Buguey,  
Savoie, 2000, p.14.





만리장성, 중국



아시아

**D'Alzon** 신부님은 옛날에 그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 중국 만리장성 끝 까지 »<sup>68</sup>이다. 그리고 이 예언적인 숨결 아래, 그의 딸들은 주님의 나라가 오시도록 앞으로, 모든 것을 뛰어 건너 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한국에 도착하면서 봉헌자들은 실제로 중국의 만리장성 저 너머에 까지 온 것이었다.

한국에 대한 선교 역사는 한국인 Paulina Shim 수녀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뽀리나 수녀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분이였다. 1965년 뽀리나 수녀는 벨기에 에서 봉헌자회에 들어왔다. 수녀회가 아시아 쪽을 개척하라



목포 한국

광주, 한국



는 부름을 들었을 때, « 동방의 끝까지 » 가는 딸들을 보기를 원했던 창설자의 희망에 응답하면서 장상들이 이 한국 수녀에게 시선을 돌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시작은 광주와 서울의 현지 종교 지도자들과 교섭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1985년 윤 주교님의 허락을 얻어 봉헌자들은 한국의 목포에 발을 디디고, 2 명의 수녀들이 본당 일들을 맡아 하면서 시작하였다. 젊은 소녀들의 요청에 따라 몇 달 후 수녀들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광주에 수련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1994년 목포에 집을 건립하고,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서울에도 자리잡고 본당과 함께 협조하며 활동하였다.

얼마 후 봉헌자들은 베트남에 뿌리내릴 생각을 하였는데 이곳에는 성모승천회 형제들이 몇 년 전에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베트남 출신의 한 수녀가 이 나라에서 뿌리내리는데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Marie-Paulette Alaux 수녀는 사실 현지 교회와 첫 교섭을 맡을 책임을 지게 되었다. 2006년 총장 Claire Rabitz 수녀의 방문으로 그들은 프란치스코회 수도자이며 성소 발굴 담당자인 Bosco 신부를 만났다. 청소년 회관의 책임자인 신부는 협조를 약속하고, 수녀들에게 봉헌자들의 삶을 알고자 하며 수녀 생활을 생각하는 소녀들과의 만남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Chine 2013

Philippines 2010

Viêtnam 2009

Corée 1985

Israël 1935

Turquie 1889





Saigon, 베트남

주교의 허락을 받고, 총장 수녀님은 그 소녀들을 프랑스로 초대하여 수녀 생활에 대한 입문을 시도하였다. 2008년 마리-뵈레트는 베트남에서 살게 되었고, 2009년 Ho Chi Minh 시에 공식적인 창립을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베트남 소녀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양성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4년 8월에 수련소가 문을 열게 되었다.

아시아에 있는 수녀회의 주도와 하느님 섭리에 따른 상황으로 인하여 중국이 봉헌자들을 향하여 다가왔다. 중국의 첫 성소자들을 맞아들이고, 양성시키기 위하여 2010년 Manila (Philippines)에 공동체의 문을 열었다.

이와 같이 아시아 일을 거론할 때에 봉헌자들은 아직도 선교에 있어 새로운 모험의 여정 초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아시아 공동체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 성모승천 봉헌자 수녀회의 총장인 Felicia 수녀는 설명하고 있다 - 저는 우리의 선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을 사로잡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는 정치, 사회-문화에 따라 여러 다른 면에 비중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거의 이 모든 나라에는 2가지 기본이 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복음 선포가 평신도에 의하여 실현되었고, 종교가 개인 생활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정신이 현대적인 면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편교회, 특별히 아시아의 교회 그리고 우리 수녀회를 위해서도 거대한 내기의 장(場)이 펼쳐져 있습니다.



manilles, 필리핀

아시아의 봉헌자들이나 혹은 아시아에 선교를 하도록 불림 받은 봉헌자들은 대화라는 견지에서 볼 때 복음 선포의 3 가지 목표를 가지고 편안한 느낌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타 종교들과의 대화(불교, 유교, 도교, 등), 문화들과의 대화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카리스마에 충실한 우리들은 가장 빈곤한 자들을 위한 봉사에서 일치와 하나되는 통공과 대화의 여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세상에 마음을 열고, 항상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

더 멀리 보는 것, 그것은 중국 쪽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곳에서 봉헌자들이 되려는 새로운 성소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마치 1935년 만주에 창립을 하기 위하여 떠났던 성모승천회 형제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첫 번째 공동체가 2013년에 문을 열었고, 2014년에는 두 번째 공동체가 문을 열었다.



만리장성, 중국



## 국제 수녀회

## Nîmes

에서 창설된 지 150년 후에, 선교사라는 성소에 충실하면서 성모승천 봉헌자 수녀들은 국제 수녀회가 되었다. 그들이 일으켜야 하는 도전은 처음과 다를 바 없다. 즉, 곳곳에,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 도전은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들이 얽힌 이 세상 안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접촉이 배로 늘어나는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주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다.

« 더 넓은 곳으로 나가라 »<sup>69</sup> 고 스승님은 말씀하셨다. 이 선교적 도전은 봉헌자들을 항상 더 멀리 밀어주고 있으며, 창조성을 지닌 수녀들이 되어 그리스도를 갖가지 방법으로 선포하도록 부른다. 또한 현지 교회와, 성모승천회의 큰 가족들과 함께 협동을 새로이 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충원, 파리

## 목차

서문	03 쪽
역사	04 쪽
1. Emmanuel d'Alzon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05 쪽
2. 신품성사 받기까지의 영적 양성 (1832-1834)	08 쪽
3. D'Alzon 신부의 Nîmes 교구에 대한 봉사(1835-1844)	10 쪽
4. Nîmes 중학교에서 성모승천 아오스딩 수도회 창설(1845-1857)	13 쪽
5. « 당신의 동방 사업을 축복합니다 » (1860-1865)	16 쪽
6. 성모승천 봉헌자 수녀회 창설(1865)	19 쪽
7. 봉헌자 수녀회의 창설자 어머니(1866-1868)	21 쪽
8. 동방선교를 향한 출발(1868)	27 쪽
9. 창설의 뿌리 내리기(1868-1880)	32 쪽
10. Pieta 상 옆에서 흘리는 창설자 어머니의 눈물(1880-1900)	38 쪽
세계를 향한 비약	42 쪽
동방	44 쪽
유럽	48 쪽
아프리카	52 쪽
남미	58 쪽
아시아	62 쪽
국제 수녀회	66 쪽

## 성모승천 봉헌자

13, Geum ho simgok – gil, Seo-gu, Gwangju  
502 - 803 CORÉE DU SUD  
Tel.: (0) 62 371 0172 / Fax.: (0) 62 372 0172  
Email: oacoree@hotmail.com  
www.oacoree.com



### Éditions du Signe

1, rue Alfred Kastler – BP 10094 – Eckbolsheim – 67038 STRASBOURG CEDEX – 프랑스  
Tél: +33 (0)3 88 78 91 91 – Fax: +33 (0)3 88 78 91 99  
www.editionsdusigne.fr – Email: info@editionsdusigne.fr

**Texte:** Monique Plassard - 성모승천 봉헌자

**Maquette:** a-la-Folie

**Crédit photo:** la Congrégation;

Fotolia : p.7 (fond) : © designelements ; p.14 (fond) : © Anette Linnea Rasmussen ; p.15 (fond) : © Olivier Tuffé ; p.22-23 : © Khorzhevskaja ;  
p.32 : © Fotolia\_8986733\_XL ; p.38 (fond) : © Chepko Danil ; p.51 (fond) : © 41370648\_M xy ; p.61 (fond) : © kbuntu

© Éditions du Signe - 2015, 109955

Tous droits réservés - Reproduction interdite

ISBN: 978-2-7468-3289-3

Imprimé en U.E.